KOTRA자료 20-051

2020 국별 진출전략

크로아티아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 3

1. 개요 ····· 3
   가. 시장 전망 ····· 3
   나. 주요 경제지표 ·····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5
   가. 유로존 가입 본격화 ····· 5
   나. 쉥겐 회원국 가입 추진 ····· 5
   다. 조선업(울랴니크, 브로도 트로기르 등) 리스크 ····· 6
   라. 산업 노동 인력 부족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 ····· 6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8
   가. 정치 환경 ····· 8
   나. 경제 환경 ····· 9
   다. 산업 환경 ····· 11
   라. 정책·규제 환경 ····· 14
2. 시장 분석 ····· 15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15
   나. 교역 ····· 16
   다. 투자 ····· 17
   라. 프로젝트 ····· 18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 21
   가. 교역 ····· 21
   나. 투자 ····· 22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23

Ⅲ. 진출전략 ·····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 26
3. 한-크로아티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 32
4. 진출 시 유의사항 ····· 36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 39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 40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 41

부 록

對크로아티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 42

Ⅰ.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크로아티아 경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EC(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2020년 크로아티아 실질 GDP는 2.5% 상승하여 2019년 예상치인 2.7%보다 다소 둔화 전망

– (**민간소비**_현상유지) 낮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으로가계 소비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강세를 유지할 것.

– (**공공투자**_상승) 크로아티아 정부 부채는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배정된 2차 EU 기금으로 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 건전한 산업 구조 구축 등에 투자 지속 예측. 이를 통해 의료산업 및 도시 개발 등의 인프라 사업에 공공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고용시장**_현상유지) 꾸준히 성장하는 관광 산업과, 공공투자에 의해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 등으로 크로아티아의 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나 고급 인력은 주변 서방 국가로 유출이 심하여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고, 네팔, 인도 등에서의 인력 수입 증가

– (**통화정책**_현상유지) 크로아티아는 최근 EU와 유로존 가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향후 유로존에 가입하면 통화 사용의 유연성이라는 장점과 물가 상승 우려 위협이 공존

– (**정치환경**_상승) 2019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 및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좀 더 강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외부적으로는 쉥겐(Schengen) 회원국으로 진입을 위해 노력 중이고, EU 국가 내에서 국경 검사(Border control)가 없는 쉥겐 국가에 크로아티아가 포함된다면 산업 투자에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경제 리스크**_하락) 크로아티아 최대 조선소인 울랴니크(Uljanik)의 파산 리스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유럽 경제에 밀접한 연관 있는 경제 특성 상 유럽 경기의 악화는 2020년 크로아티아 경제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

나. 주요 경제지표

주 요 지 표	단 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구	백만 명	4.256	4.238	4.204	4.174	4.125	4.096	4.067	4.039
명목 GDP	십억 달러	58.158	57.683	49.519	51.623	55.201	60.688	61.252	64.59
1인당 명목GDP	달러	13,665	13,611	11,779	12,368	13,382	14,816	15,059	15,992
실질성장률	%	-0.492	-0.088	2.401	3.536	2.921	2.708	2.62	2.5
실 업 률	%	19.808	19.275	17.067	14.958	12.433	10	9	8
소비자물가상승률	%	0.3	-0.499	-0.601	0.202	1.207	1.3	1.5	1.5
재정수지(GDP대비)	%	-2.155	-2.346	-0.144	2.098	3.397	2.525	2.554	2.618
총수출	백만 달러	12,742	12,527	11,317	11,633	13,194	14,459	14,986	17,614
(對韓 수출)	〃	13	7	7	18	64	102	-	-
총수입	〃	21,932	21,170	19,064	19,807	22,487	25,489	26,415	30,263
(對韓 수입)	〃	47	104	138	455	214	231	-	-
무 역 수 지	백만 달러	-9,190	-8,643	-7,747	-8,173	-9,292	-11,030	-11,429	-12,648
경 상 수 지	〃	529	1,140	2,241	1,338	2,150	1,622	1,389	1,116
환율(연평균)	현지국/US$	5.54	6.30	6.99	7.17	6.27	5.97	6.55	6.34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9.61	28.79	2.70	18.08	20.37	11.59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68	19.63	0.11	-3.38	6.87	3.54	-	-

주 :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자료 : IMF(국제통화기금, 2019년 10월), 크로아티아 통계청(2019년 10월),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2019년 10월)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유로존 가입의 본격화로 기대와 우려가 상존
※ 쉥겐 회원국 가입 예정으로 산업 전반에 혜택 예상
※ 주요 조선소의 부도 위기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려
※ 노동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대두

가. 유로존 가입 본격화

유로존 가입을 위한 정식 가입 신청을 완료

○ 지난 7월 유로존 가입을 위한 환율 메커니즘(ERM II)에 정식 가입 신청
– 크로아티아는 이미 유로화에 대한 환율 안정을 추진해왔고, 인플레이션의 억제와 금리의 하향 조정 등 유로화 채택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 옴
–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이 되며, 크로아티아는 이 기간에 은행 공동체에 가입하고,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비즈니스 장벽을 줄여나가야 할 것

물가 상승의 우려와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 유로존 가입은 금융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경제가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의 강한 우려가 있으며 크로아티아가 유로존 가입을 위한 제반 조건을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상존
– 유로존 가입에 따라 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

나. 쉥겐 회원국 가입 추진

2020년 중반 쉥겐 회원국 가입을 목표

○ 크로아티아는 이슬람교 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맞닿아 있어 난민 유입 등의 이유로 쉥겐 가입에 어려움을 겪음
–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신규 회원국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그동안 몇 차례의 시도에도 크로아티아와 같은 구 유고연방 국가였던 슬로베니아의 반대로 무산
– 크로아티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쉥겐 회원국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2020년 1월부터 6월간 EU 순회 의장국을 수행할 예정에 있어 이 기간에 EU 내에서의 입지를 넓히며 쉥겐 회원국 가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

쉥겐 지역 가입은 경제 전반에 큰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

-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근교 국가들의 여행객 방문이 보다 용이
  -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고 주변 국가에서의 방문이 높은 크로아티아는 그동안 국경에서의 지체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쉥겐에 가입하게 되면 여름 시즌 관광객 유입 수 증가가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2020년 7월 전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적인 포인트가 될 것
- 쉥겐 가입은 크로아티아의 운송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내륙 운송 화물의 경우 그동안 국경에서의 지체로 금전적 낭비가 있었으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
  - 크로아티아가 중점을 두고 있는 리예카 항구의 개발에도 시너지 요인으로 작용

다. 조선업(울랴니크, 브로도 트로기르 등) 리스크

조선회사 울랴니크의 임금 미지급 문제에 따른 국가 보증

- 2018년부터 임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울랴니크는 결국 파산 신청
  - 크로아티아의 조선업을 이끌어오던 조선회사 울랴니크가 지난 3월 최종 파산 신청을 하였고 크로아티아 정부는 울랴니크에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
  - 기업 매각 추진하고 있으나 인수할 곳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관련하여 중국인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갔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
  - 국가가 막대한 공적 자금을 이용하여 파산에서 구조된 크로아티아 최대의 유통 기업 아그로코르의 케이스처럼 많은 공적 자금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남아 있음
- 울랴니크 이외에도 브로도 트로기르, 3-매이 등 크로아티아 조선 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필요한 상황

라. 산업 노동 인력 부족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

가용 노동 인력의 해외 유출 증가

- EU의 동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인 노동 인력의 해외 유출
  -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로 젊은 인력 층이 유출되어 인력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 크로아티아 정부는 건설 분야와 관광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할당을 6만 5천 명까지 늘리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

– 다만 양질의 인력이 해외로 유출된 원인은 높은 임금과 업무 조건 등에 의한 것으로 크로아티아 내에 안정적이고 고소득의 직업군이 생기면 해외로 나간 인력이 크로아티아 국내로 다시 유입될 가능성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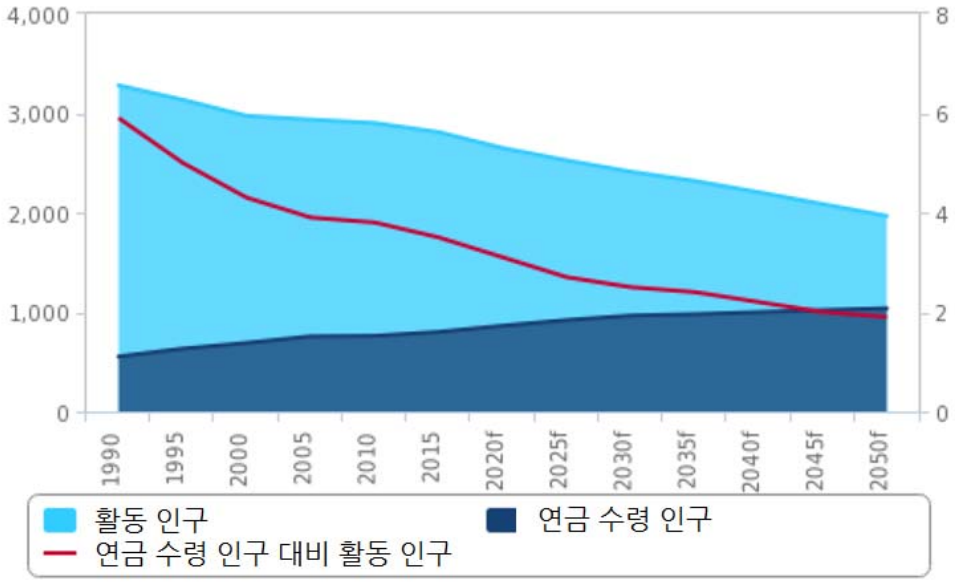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빠른 진입

ㅇ 크로아티아의 인구는 약 410만 명이며 이중 270만 명 가량이 노동 가능 연령 범위

– 이는 동유럽 주변 국가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이는 앞으로의 노동 시장에도 꾸준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환자 증가 및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우리 제약기업의 관심 필요

크로아티아 활동 인구 및 연금 수령 인구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7월)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경제 사회적 정책 제시될 것으로 기대
※ (경제)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 (산업) 관광 분야에 대한 경제 의존 지속
※ (정책) 부가세 인하로 소비 진작

가. 정치 환경

대통령 선거(2020년 12월)를 앞둔 크로아티아

○ 집권 여당인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HDZ)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좌파 성향의 사회 민주당(SDP)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

–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HDZ)은 무소속 동맹(MOST)과의 연정(聯政))이 붕괴되었지만 인민연합(NK)의 한 축을 담당하던 크로아티아 인민당(HNS)와 새로운 연정으로 여당으로의 명맥을 유지

크로아티아 정당 및 정당별 좌석수

구분	정당 이름	좌석수
HDZ	HDZ 연합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 HDZ 주도)	61
NK	인민연합 (사회 민주당, SDP 및 크로아티아 인민당 , HNS 주도)	54
MOST	무소속 동맹	13
EM	소수 민족당	8
JO	유일 연합 (휴먼 실드)	8
Others	기타	7

자료 : Croatian Parliament(2019년 10월)

○ 크로아티아 민주 연합(HDZ)는 크로아티아 독립 후 24년 동안 집권 여당으로 활동해왔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정부패에 대한 거듭된 비난에 시달리는 중

– 아직 정당별 내부 경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0년 대선에서도 HDZ 당의 후보가 대통령 자리를 이어 갈 것으로 예측되지만, 정치 및 정부의 혁신을 바라는 계층의 응집력 상승

조선소(Uljanik) 처리, 유로존 및 쉥겐 회원국 가입 등이 핵심적인 이슈

○ 어느 정당의 대통령이 선출이 되더라도 경제에 대한 드라이브는 강해질 것으로 전망

- 크로아티아의 대형 조선소 울랴니크는 부도로 인해 법정 관리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정체 상태이며 조선소의 매각 여부는 크로아티아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
- 유로존 및 쉥겐 회원국 가입은 크로아티아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 오랫동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어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과 함께 다시 한번 주요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대통령 선거에 앞서 노동계층 및 난민 등 소수 계층의 목소리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

나. 경제 환경

유럽 경제의 경기 침체에 대한 영향으로 성장 저해 예상

○ 2019년까지 폭이 크지 않지만 꾸준히 성장해 온 크로아티아 경제는 독일 경제의 침체와 나머지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둔화로 2020년에는 성장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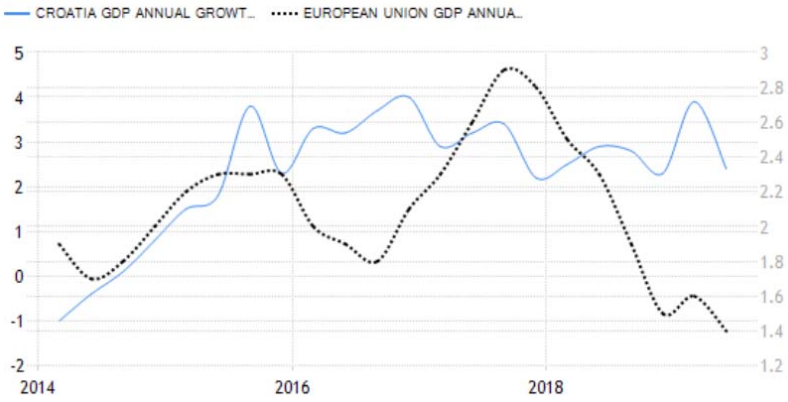
크로아티아 주요 경제 예측 지표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실질 GDP 성장율	2.6	2.7	2.5	2.6	2.7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1.5	1.3	1.6	1.7	1.9
실업률	9.8	9.5	9.3	9.2	8.8
달러대비 환율	6.28	6.55	6.28	6.13	5.97

자료 : Economist(2019년 10월)

- 크로아티아의 경제는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유럽의 경기 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 경제 성장률은 2.6% 수준으로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보이나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저성장세는 더 많은 개방의 압박과 무역 수지 악화 측면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

크로아티아 vs EU국가 평균 연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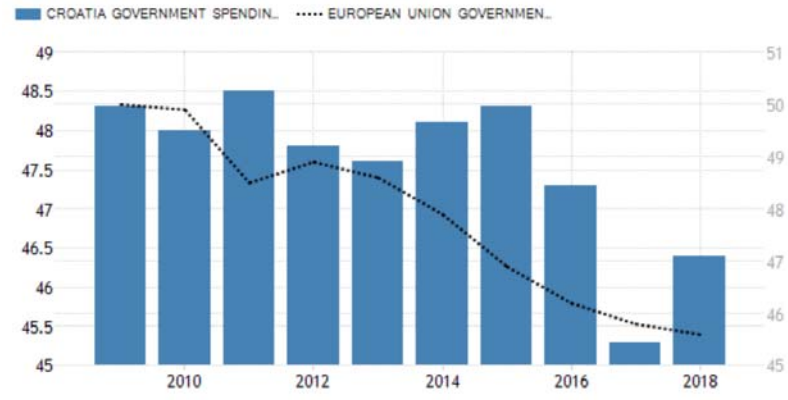
자료 : tradingeconomic.com(2019년 10월)

EU 구조 기금 확보 및 정부 지출 및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는 긍정적 요인

○ 현재 EU 회원국 중 마지막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다가오는 20년 후에도 110억 유로 상당의 EU 기금이 배정될 것으로 예측

– 크로아티아 정부의 재정 관리는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오다 2015-16 년부터 재정 적자를 크게 좁히고 있으며 정부 지출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크로아티아 vs EU국가 평균 연간 정부 지출



자료 : tradingeconomic.com(2019년 10월)

–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의 상승, 실업률의 감소 등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부양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총 가계 지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 가계 지출 (백만 쿠나)	127.3	133.4	138.4	144	149.7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7월)

다. 산업 환경

국내 GDP의 60%가 서비스업

ㅇ 크로아티아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60%를 차지하며 이중 관광 분야가 2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구조를 보유

– 2018년 크로아티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순수 제조업의 비율이 약 26%로 그 비중이 낮으며 고용의 많은 부분도 도소매 유통업 및 관광관련 분야에서 발생

ㅇ 수입시장 활성화

– 식품 및 가공산업을 제외한 많은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 의약품,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음.

– 구유고연방 해체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및 EU 가입에 따른 수출입 및 투자 자유화로 기존 제조업체가 대부분 구조조정을 거쳐 도산 또는 통폐합되면서, 많은 공산품이 유럽산 수입제품으로 대체 중

– 수입 및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품목별 전문수입 에이전트 및 디스트리뷰터 발달

주요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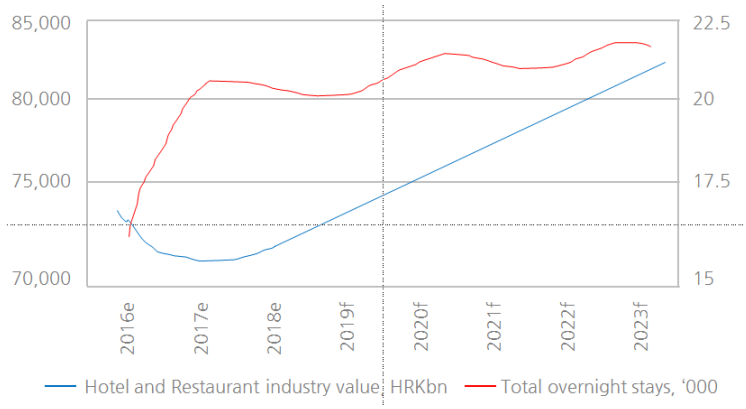
ㅇ 관광 산업

– 관광 산업은 크로아티아의 전략 산업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아드리아 해안을 기반으로 단체, 가족, 인센티브, 럭셔리, 의료 등 모든 유형이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고 꾸준히 성장 중

– 관광업과 관련하여 크로아티아 정부는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국가 보유의 부동산들을 프로젝트 형태로 공개

– 관광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숙박업의 수요는 여전히 공급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의 프로젝트와 연관하여 크로아티아의 호텔·리조트 시장에 관심 가질 필요 있음

호텔/레스토랑 산업 시장 가치 및 총 숙박일수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7월), Croatia Tourism Report Q3(2019년 6월)

○ 의약품 및 의료장비

– 의약품은 15억3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로 2018년과 비교하여 3.5% 성장하였으며, 헬스케어 분야는 43억 4천만 달러의 시장규모로 전년 대비 2.6% 성장

크로아티아 의약품, 헬스케어 및 의료기기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의약품 및 헬스케어	1,302	1,475	1,530	1,719	1,824	2,080
의료기기	339.1	359.8	385.4	422.2	460.8	537.1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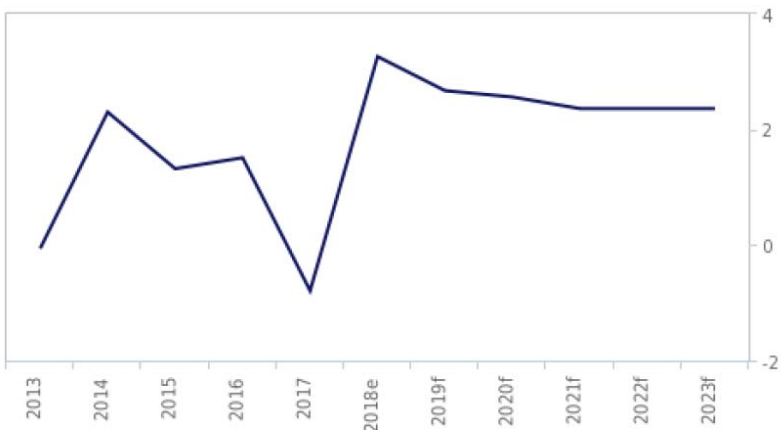
– 크로아티아 보건복지부 및 주요 병원의 대표자들은 지난 6월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크로아티아 의료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였으며 EU 국가의 Health network의 승인을 통해 더 많은 유럽의 환자들이 크로아티아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인프라 조성

– EU 기금의 많은 부분이 의료 보건 분야에도 할당이 되어 있으며 2019년 4월까지 크로아티아의 의료 분야에서는 총 52건, 총 3억 달러 규모의 입찰 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분야의 투자 지속

○ 소비재 시장

– 최저임금 상승 및 세금 혜택을 통해 크로아티아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부가세가 1% 감면될 경우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크로아티아 가계 소비의 실질 성장률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7월)

- 크로아티아의 시장이 규모가 작지만, 지리적인 거점으로서의 장점이 있는 만큼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니즈 발견, 상대적으로 지출 지향적인 젊은 소비층을 타깃으로 소비자 시장을 바라볼 수 있음
- 서유럽의 유행이 한 템포 늦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한국 화장품의 유행 및 K-POP 유입에 대한 잠재력 보유 중
- 다만 기업과 개인 간 물류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그 동안 성장세가 뚜렷하지 못하였지만, 온라인 마켓 성장에 대한 트렌드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기회 요인은 여전

○ 국방산업

- 발칸 전쟁 이후 국제 정세의 안정으로 및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군사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현대화되지 못한 시스템이 남아 있으나 인접 국가와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방위 시스템 개선의 요구 지속

크로아티아 방위비 예산

항 목	2019년	2020년	2021년
방위예산(백만 쿠나)	6396,3	6639.4	6879.1
증가율	4.9	3.8	3.6
GDP대비 방위예산	1.6	1.6	1.6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1월)

-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점차 증가시켜 2019년에도 계속해서 방위 예산을 늘려 갈 것으로 보이며 군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군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국방 시스템 현대화에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

라. 정책·규제 환경

전략적 육성 산업

ㅇ 크로아티아 투자 본부는 관광 분야 외에 제조업의 전략적 육성에 관심

– 주요 산업은 ICT, 자동차 산업, 식품가공 산업, 의약품 산업, 기계 장비 제조, 섬유 부분 등이며 ICT 분야의 경우 미래 수종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터 창업까지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물류 산업 육성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크로아티아는 현재 남부·동유럽 물류 거점을 슬로베니아 코퍼(Koper)에 빼앗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리예카(Rijeka) 항의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를 실시할 예정

ㅇ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 지속

– 크로아티아는 환경 관리 시스템과 환경 관리 목표를 EU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그리고 전략 산업인 관광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그동안 등한시됐던 쓰레기 처리 및 하수 처리 등의 부분에 기회가 있을 것

규제 및 세금

ㅇ EU 연합 국가로서 EU의 정책 외에 크로아티아 자체의 무역 규제는 없음

– 철강 분야에 대한 EU Safeguard로 인해 크로아티아의 각종 건설 산업(항구 개발, 철로, 프로젝트 건설 등)에 국내 철강 제품의 수출은 2020년에도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

ㅇ 2020년에 부가세는 25%에서 24%로 낮춰질 예정

– 세금 체계에서 가장 큰 관심 주제 중의 하나였던 부가세 감면은 2020년에 1% 감세로 진행될 예정에 있으며 새로운 세제로 언급되던 부동산세는 추진하던 계획을 폐기

– 그 외에도 2020년 1월로 계획된 제4차 세제 개편안의 내용에는 청년층 소득세 면제, 법인세 12% 적용 중소기업 범위 확대, 요식업 부가세 13%로 재인하 등 감세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소비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

2 시장 분석

※ 구 유고연방과 주변 국가의 지리적 거점 기능
※ 제조업이 취약한 수입 의존 시장에 대한 수출 기회
※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기회 여전
※ 국외 투자 유치의 어려움 봉착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남부 유럽의 지리적 거점 국가

- 크로아티아는 지중해를 접하면서 유럽의 젖줄인 다뉴브강으로도 연결이 되는 독특한 지리적인 여건을 보유
- 성장의 잠재력을 보유한 구(舊) 유고연방 7개국과 인접(슬로베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코소보 등)
- EU의 성숙 시장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독일과 700km 이내에 접근 가능하며,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과도 인접한 남부 유럽의 지리적 허브
  -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4년 자그레브에 매장을 오픈한 글로벌 유통기업 이케아(IKEA)는 지난 5년간 85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했으며, 웹 사이트에는 2,8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매년 큰 성장
  - 이는 지리적인 위치를 잘 활용한 것에 큰 성공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그레브 주변 도시 및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케이스

편리한 교통 인프라

-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연결된 고속도로 및 철도, 항만 및 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복합 운송 터미널의 인프라가 갖춰짐.
  - 또한, 크르크 섬 LNG 항만 개발 추진, 리예카 공항 증축, 리예카 및 자다르 항구의 철도 인프라 구축 등 물류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진행 중

크로아티아 주요 교통 인프라

고속 도로	철로	항공*	항만(바다)	항만(다뉴브강)
29,547 km	2,726 km	7개의 국제공항이 유럽 주요 도시를 2-3시간에 접근	6개	4개

자료 : 크로아티아 투자본부(2018년 7월)

낮은 1, 2차 산업 비중, 관광 및 유통업에 의존

- 관광,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고, 농축산업 및 제조업이 취약한 전형적인 수입국가
- 식품가공업을 제외한 많은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 의약품, 전기·전자제품 등이 특히 수입 비중이 높음
- 아드리아해에 인접하여 있고 국토에서 녹지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GDP에서 농축산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
  - 최근 정부프로젝트 및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수산업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유기농 및 웰빙 등의 트렌드를 활용하여 농축산업의 활성화에도 노력 중

나. 교역

크로아티아의 국가별 수출입 동향

- (수출) 크로아티아의 대외수출은 2018년 누적 기준 1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3% 증가
  - 작년 증가율의 14%보다는 낮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탈리아(14%), 독일(13%), 슬로베니아(10%) 및 발칸 반도의 인근 국가로 수출 비중이 높음
- (수입) 대외 수입은 28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 작년 증가율의 11%보다 높은 상승세이며, 수입 역시 독일(15%), 이탈리아(13%), 슬로베니아(11%) 등 유럽 주변국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중국(3.7%), 한국(0.8.%), 일본(0.1%) 등 동아시아 국가의 현지 수출은 저조
- 수출의 상승세는 둔화됐고, 수입의 상승세는 가중되어 무역 수지 악화

크로아티아의 최근 연도별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	13,836	12,939	13,813	16,074	17,401
증감률	8.42	△6.93	6,33	14.07	8.26
수입	22,811	20,573	21,905	24,837	28,203
증감률	3.49	△10.88	6.08	11.8	13.55
무역수지	-8,975	-7,634	-8,092	-8,763	-10,802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 (EU 의존도 심화) 2013년 EU 가입 이후 역내교역으로 무역전환 뚜렷
  - 2018년 기준으로 EU 역내수출이 약 68%로 역내교역 비중 높음
  - 특히, EU 내 교역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전체 교역량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크로아티아의 EU 국가와의 무역 의존은 더욱 심화

경제권역별 크로아티아 수출

(단위 : 백만 유로,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CAGR (2015~2018년)
전체	11,528	12,317	14,017	14,543	8
EU	7,683	8,183	9,093	9,997	9
CEFTA*	2,063	2,019	2,445	2452	6
OPEC	231	307	230	242	2
EFTA	184	192	228	257	12

주: (CEFTA) 남동유럽 자유무역협정-현재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7개국이 참여
자료 : 크로아티아 통계청(DZS, 2019년 10월)

크로아티아의 품목별 수출입 동향

- 광물성 연료, 에너지의 교역 비중이 높으며 전체적으로 주요 수출입품목이 유사한 특징을 보이며, 이는 크로아티아가 기본 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후 재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
- 주요 품목 중 의료용품과 가구류의 수출량만 감소 추세를 나타내었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성장률이 높았음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비중(%)
광물성연료, 에너지(27)	1,297	1,709	1,853	10.6
보일러, 기계류(84)	1,254	1,371	1,479	8.5
전기기기, TV, VTR(85)	1,224	1,362	1,433	8.2
의료용품(30)	927	1,276	1,057	6.1
목재류(44)	792	866	972	5.6
자동차 및 부품(87)	513	643	812	4.7
의류(편물제)(61)	492	534	578	3.3
철강제품(73)	428	520	573	3.3
알루미늄과 그 제품(76)	304	482	517	3.0
가구(94)	550	524	497	2.9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다.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2018년부터 하락

- 2005~2008년 성장기를 겪은 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투자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 이후 FDI 흐름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

○ 2018년의 경우 2017년 대비 FDI가 급격히 하락

–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FDI 유입액(11억 달러)은 2017년(20억 달러) 대비 40% 이상 감소. FDI는 2017년 말 334억 달러(GDP의 66.8%)를 기록

크로아티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외국인직접투자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2018)
현금(Inward Flow)	1,808	2,037	1,159	-43.1%
물량(Stock)	27,602	33,469	32,884	-17.4%

자료 :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2019년 10월)

투자 환경에 대한 대외 평가

구 분	내 용
강 점	• 유럽 연합 회원국 • 2013년 이후 국가 예산의 지속적 흑자 • 다른 EU 국가에 비해 낮은 인플레이션 • 해안 인접에 따른 관광 활성화 • 인적자원의 다국어 사용 능력 • 교통, 통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지속 투자
약 점	• EU 경제 상황에 따른 국가 경제의 취약성 •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의 개선 • 높은 수준의 공공 부채 • 1, 2차 산업 침체로 인한 무역 적자 등 구조적 약점

국가별 투자진출 동향

○ EU 국가들이 전체 투자의 88.4%를 차지할 정도로 투자 비중이 높음

– 2017년 기준으로 네덜란드(21.3%), 오스트리아(12.14%), 이탈리아(10.57%), 독일(9.34%)이 주요 투자국

– 주요 산업으로는 금융, 유통, 부동산, 통신, 석유화학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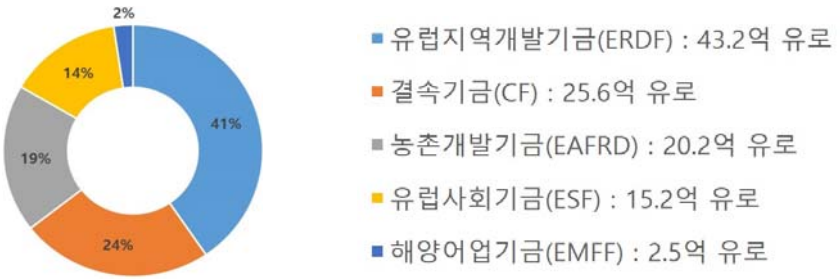
라. 프로젝트

크로아티아 EU 기금 배정 현황 및 활용 정책

○ EU는 크로아티아의 인프라 개선 및 균형발전을 위해 2014~2020년 EU 기금으로 약 106.7억 유로를 배정

○ 크로아티아는 EU에서 요구하는 교통 인프라·환경·교육·고용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산업 전 분야에 자금을 배정하여 활용할 계획이나 특히 교통, 에너지, IT, 환경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중

크로아티아 EU 기금 배정현황(2014~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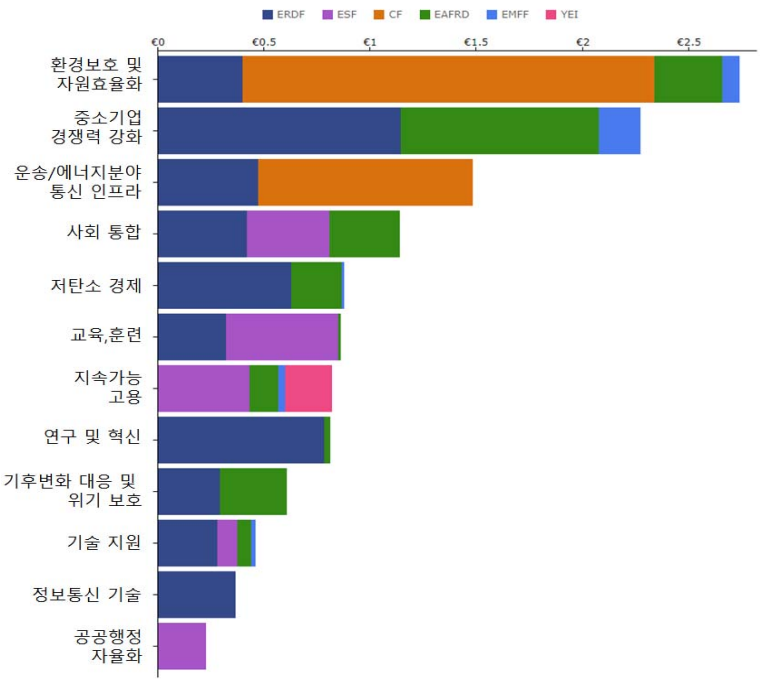


자료 : European Commission(유럽위원회, 2019년 10월)

EU 기금 활용 프로젝트 추진 지속 추진

-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기금 활용률 제고를 정책 우선순위로 삼고 ① 정부 역량 강화, ② 입찰조건 변경 최소화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 ③ EU 기금 활용정책 홍보 등을 통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노력
- 그 결과 매년 EU 기금 활용액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가 2020년까지 추진될 예정
- 환경 보호 및 자원 효율화 분야가 가장 많은 예산 항목으로 설정

사업 분야별 예산 규모



자료 : European Commission(유럽위원회, 2019년 10월)

크로아티아 정부 차원의 투자 프로젝트

○ 크로아티아 정부는 EU 기금 이외에 자국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시 중

– 이 중 국가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관광 프로젝트 수가 30개(인프라 관련 프로젝트 포함 시 총 48개)로 가장 많으며, 기타 제조업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계획이 추진 중

크로아티아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현황

순위	분야	프로젝트수	금액(EUR)
1	Tourism	30	2,565,350,000
2	Infrastructure - Tourism infrastructure	18	1,707,700,000
3	Industry	12	1,018,581,657
4	Infrastructure - Transport infrastructure	9	1,496,824,000
5	Healthcare	7	194,417,280
6	Infrastructure - Utility infrastructure	5	1,318,520,000
7	Other	5	1,072,730,000
8	Agriculture	5	717,451,657
9	Infrastructure - Other	5	15,420,000
10	Construction	4	1,029,000,000
11	Environmental protection	4	878,800,000
12	Energy - Renewable Energy	4	505,800,000
13	Water management	2	160,000,000
14	Infrastructure	2	57,000,000
15	ICT	1	1,000,000

자료 : 크로아티아 투자본부(2018년 6월)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협 의제

가. 교역

대(對)크로아티아 수출둔화

○ 한국의 수출은 의약품 수출둔화에 따라 전년 대비 약 9천만 달러 감소
- 2016년 크게 증가했던 의약품의 수출이 2017년부터 감소세로 전환

○ 2017년도 대비 2018년은 27% 정도 감소

○ 유기화합물 분야가 규모는 작지만 눈에 띄게 성장
- 플라스틱 품목이 두 번째로 많은 수출품목으로 꾸준히 유지

우리나라의 크로아티아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량

(단위 : 백만 달러, %)

HS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가율(2018)
30	의약품	398.0	170.4	162.7	△4.5%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18.0	10.8	18.7	73.5%
87	자동차	4.4	11.8	17.1	45.2%
84	보일러 기계류	11.5	9.8	9.1	△6.7%
72	철강	1.8	5.0	8.8	74.8%
29	유기화합물	0.9	1.2	7.5	526.4%
90	광학/의료측정·검사 정밀기기	3.9	3.5	3.8	8.2%
합계	전체 수출	448.4	327.6	241.1	-26.4%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 한국과 크로아티아의 교역은 각종 장비류 중심의 B2B 교역이 진행
- 주요 수출품 : 의약품, 플라스틱, 자동차, 기계류 등
- 주요 수입품 : 수술용 의료기기, 전자 사운드 장비 등

수출 성공 사례 : 화장품 제조사 I사(크로아티아 수출)

-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현지 화장품 유통사에 10만 달러 수출
- 크로아티아의 대(對)한국 화장품 수입은 2018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Global Trade Atlas 통계치)
- **제품의 비교우위** : 유럽 화장품 및 여타 한국제품 대비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 우위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증가율(2016)	대한(對韓) 수입증가율(2017)
330499	화장품	△5.87%	4595.79%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현지에 고조되는 K-뷰티의 인기와 만나 수출성사

- **마케팅 툴**

필수 인증	CPNP
성약 소요기간	6개월 / 2018. 12(사업파트너연결조사) ~ 2019. 6(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서치)
바이어 D/B	Poslovna, 무역관 자체 자료
유망전시회	Beauty&Hair Expo 자그레브(상반기 연례개최)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바이어 성향 파악)** 크로아티아의 일반부가세는 24% 수준으로 유통비가 더해질 시, 화장품 소매가는 비교적 비싼 편임. 이 때문에 현지 제품들은 인근 서유럽 국가에 비해 저가제품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가격경쟁력 확보가 현지진출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제품시장도 존재함으로 명확한 타깃 설정을 통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현지 출장 필수)** 크로아티아 바이어들은 현지에 직접 출장을 오지 않는 회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는 특성을 보임. 이는 유럽 주요 공급자들이 크로아티아를 자주 찾아오는 관례 탓이기도 함. 식사 또는 커피타임을 곁들인 상담을 매우 좋아하며, 출장자에 대한 신뢰도가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나. 투자

소수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진출

○ 크로아티아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판매법인(구 유고연방 관할) 외 대한항공이 크로아티아에 지사를 개소하였으나 한국 전통 제조기업의 투자는 저조한 상황

○ 시밀러바이오 분야의 S기업은 크로아티아에 2018년 자그레브에 지사를 설립하였으나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2018년 대한항공의 인천-자그레브간 직항 노선 개설에 따른 지사 설립 이후 국내 기업의 진출은 없는 상황

○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올해 5월 크로아티아의 고성능 전기차 업체인 리막(Rimac)에 총 8000만 유로(약 1천억원) 투자

– 현대기아차 그룹은 현대차 6,400만 유로, 기아차 1,600만 유로 투자를 통해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20년까지 N브랜드 미드십 스포츠카와 고성능 수소전기차를 개발할 계획

투자 실패 사례 : ANS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

- 개요 : ANS 시스템 현대화 프로젝트느 크로아티아 컨트롤사의 AIS DB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로 총금액은 4천 7백만 달러
- 추진경과
  - A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 입찰 참가를 계획하였으며, KOTRA 자그레브 무역관의 지원을 통해 현지파트너사를 발굴
  - 잠재 파트너와 NDA를 체결하고 프로젝트 참가를 노렸으나, 파트너사가 S/W 솔루션 부문에서 프로젝트 기술 사양에 맞는 충분한 실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 최종 고사
- 시사점 : 협력업체 역량 부족에 따른 실패 사례
  - 미연에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찰 준비 시, 공개된 프로젝트 정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술 사양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공개된 기술 사양은 쉽사리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술사양에 부합하는 파트너사를 찾아 컨소시엄 구성 필요
  - 기술 사양이 유동적일 경우에는 신속한 기술제안서 제출을 통해 사전에 우리에게 유리한 입찰구도를 만드는 것도 방법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크로아티아 관광 분야 교류 활성화

○ 관광청 사무소 개소로 관광 교류 확대

– 한국–크로아티아 간 직항 노선 개설에 이어 크로아티아 관광청의 한국사무소 개소로 양국의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18년 대사관 설립, 2019 관광청 사무소 개소로 관광 산업을 포함한 산업 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 크로아티아의 관광 분야 국가 프로젝트

– 국가 소유의 호텔, 리조트에 대한 대외 입찰 공개 및 관광지구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 관련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검토 필요

전기차·스마트시티 신산업 협력

○ 신산업 분야 협력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EU의 친환경 자동차 육성정책과 맞물려 크로아티아 전기차 판매량은 2018년에 64% 증가하는 등 시장 확대 중

– 현대·기아차의 현지 전기차 생산업체 리막오토모빌리 투자와 맞물려 양국 자동차 산업 협력에 대한 관심 증가

–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인프라 전반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 있음

– 현지에서는 HEP(전기공사), HT(크로아티아 텔레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자동차·선박 전기 충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기충전소 건설은 크로아티아 정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와 또한 맞닿아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도시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동프로젝트 개발 노력 필요

보건의료부문 협력 강화

○ 보건산업은 크로아티아 주요 산업이며 양국간 비즈니스 교류가 가장 많은 산업

– 크로아티아는 전통적으로 보건의료 산업이 강한 국가이며, 최근 동유럽의 의료관광지로 주목받는 중

– 크로아티아 정부는 의료산업에 할당된 2014~2020년 EU 기금을 전액 소진하는 등, 활발히 병원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3차 EU 기금 기간에는 더 많은 기금을 할당해 산업을 강화할 것으로 관측

– 양국 보건부는 2017년에 보건의료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새로이 기획될 e-헬스케어,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Ⅲ. 진출전략

※ 정부 프로젝트 참여기회 모색(환경, 스마트시티, 의료)
※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지원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크로아티아 시장 SWOT 분석>

S 강 점 (Strength)
- EU 정회원이자 발칸지역의 정치·경제적 리더
-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진작
-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W 약 점 (Weakness)
- EU 경제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 관료주의에 의한 공공시장 진출의 어려움

O 기 회 (Opportunity)
- EU 기금의 활용한 프로젝트 기회 지속
- 환경보호 이슈 강조
- 한국에 대한 IT 선진국 이미지

T 위 협 (Threat)
- 최대 조선기업 울랴니크의 부도 위기
- 유럽 경제 불안
- 지나치게 높은 관광 산업 비중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EU 기금 관련한 프로젝트 및 정부 프로젝트 관련 아이템 발굴 및 진출 • 한국브랜드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강화	공공 의료 분야
ST 전략 (강점 활용)	• 크로아티아의 지리적 거점 활용한 유럽 진출전략	환경 및 스마트시티 관련 시장 개척
WO 전략 (기회 포착)	• 공공분야 접근을 위한 대안 마련 • 환경 및 IT 관련 솔루션 제시	
WT 전략 (위협 대응)	• 초기 투자를 줄이며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 마련	IT, 뷰티 등 소비재 수출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 야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소비재	화장품, IT 제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진출
환경	쓰레기 및 수처리 관련 솔루션 차원의 접근 전략
스마트시티	도시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아이템으로 틈색 시장 개척
의약품/의료기기	의료 관광 육성의 트렌드를 활용하여 뷰티 및 치과 분야 적극 진출
진출 전략	공공 분야 집중 공략 및 인기 소비재 중심 시장 진입

2-1. 소비재(화장품, 의류 및 IT용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됨
- ○ 패션, 미용 및 가정용품에 대한 수요 확대 예상
- ○ 온라인 마켓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가 및 부가세 인하로 소비 활성화 예상

– 최저 임금 수준 향상(2019) 및 감세 정책(2020)은 소비 진작에 도움을 줄 것

○ 패션, 미용 및 가정용품 등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

– 패션 트렌드에 민감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 크로아티아는 미용 시장도 꾸준히 성장 중

– 가정용품에 대한 지출은 매년 평균 3.7%씩 증가하며 견실한 성장이 예상

○ 온라인 마켓의 규모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였으나 잠재력 보유

– 크로아티아의 온라인 마켓 시장은 물류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 규모와 성장세가 더딘 편

– 대표적 온라인 상거래 기업으로는 ekupi, MALL.hr 등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창의적인 제품에 소구하고 가격 민감도를 고려

– 크로아티아의 젊은 계층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창의적인 제품과 디자인에 관심이 높은 편이나 고가(高價) 상품에 대한 구매력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민감도도 고려가 필수적

○ 온라인 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진출전략을 설정

– 크로아티아는 낮은 시장성으로 인해 상품의 종류가 다채롭지 못한 편인데 온라인 시장이 신제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음

○ 화장품 및 IT 기기 등 유망

– 한국 화장품 및 미용관련 제품이 타 유럽 시장에서 성공함에 따라 유럽 유통 채널인 Muller, DM, Spar 등에 한국 제품이 간헐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등 현지 소비자와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짐.

– 현지에서 한국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면서 경제적인 것으로 알려져 IT 기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존재

– 유럽 전역에 전기 자전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크로아티아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렌탈 시장이 성장하고 있어 B2B 전기 자전거 시장도 유망

2-2. 환경-쓰레기 처리 및 수(水) 처리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환경 보호를 위한 EU 가이드라인 부합에 어려움
- ○ 관광 산업 및 지리적 여건에 의한 빠른 솔루션 도입의 필요성 보유
- ○ 쓰레기 처리 및 하수 처리 분야 유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폐기물 처리 관련 EU 가이드라인의 압박에 시달리는 크로아티아

– 크로아티아는 다른 EU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EU 가이드라인에 맞춰 평가를 받을 예정에 있으나 분해성 유기 폐기물, 폐타이어, 도시 쓰레기, 건설 폐기물 등의 부분에서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여 막대한 환경 부담금 지급 위기

○ 지속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분야

– 환경보호는 크로아티아의 관광 시장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인

– EU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크로아티아 자체의 자정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

○ 1천여 개가 넘는 섬 지역은 식수와 해양 폐기물 처리가 주요 이슈

– 크로아티아는 아드리아해에 1천 개가 넘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크고 작은 주요 섬들은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 시즌에는 수자원의 시간적, 공간적인 불균형에 시달리는 중

– 도시 폐수 하수 및 처리 시스템의 건설, 수리 및 재구축이 이루어질 것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공공 분야에 폐기물 및 수(水) 처리 관련 솔루션으로 접근할 필요

– 민간 분야는 공공 분야의 정책에 맞춰 해결책을 따라갈 측면이 높으므로 선제적으로 공공 분야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

– 특히 EU 기금으로 재원이 풍부한 자그레브 및 관광 수입으로 재원이 여유로운 두브로브니크, 달마시안 카운티 등이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유럽 국가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이 유리

– 크로아티아의 쓰레치 처리 기기 분야의 진출에서는 CE 인증이 필수적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이 시장 진입에 유리할 것

○ 분해성 유기 폐기물 처리 및 수(水) 처리 분야 유망

– 음식물 처리 기기 및 관련 솔루션은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호텔 및 레스토랑 등 민간 분야에서도 유망

– 도시 상하수도의 하수 처리를 위한 기기 및 관련 솔루션, 바다 및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분야도 유망
– 워터 펌프(Water pumps), 격리기(Separators), 파이프 (Pipes), 필터(filters), 바이오 필터(bio-filters), 슬러지처리장비(Sludge treatment equipment), 산업용 정수처리기 등

2-3. 스마트시티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EU 기금의 충분한 확보
- IT관련 크로아티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
- 도시별 특성을 반영한 IT 기반의 솔루션 접근 가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크로아티아의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높은 관심
– 스마트시티 인프라 개발은 초기 수준이지만 빠르게 진행 중이며 크로아티아 도시의 약 50%는 이미 하나 이상의 스마트 솔루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을 시작

○ 두브로브니크 및 수도 자그레브가 중심이 되어 도시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거나 혹은 시작을 준비하는 중
– 스마트 거리에 스마트 주차 및 환경 모니터링 및 제어 솔루션(두브로브니크)
– 교통 및 도시 이동성 및 공용 자전거 (슬라본스키브로드, 코프리브니차, 카를로바츠, 오시예크, 고스피치, 센 등)
– 차량 공유 또는 주행 가능성(자그레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메가 프로젝트보다는 기술 단위로 진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 메가 프로젝트보다는 도시별 한두 가지의 스마트시티 아이템으로 접근되는 초기 단계
– 지역적인 특색과 문화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기술 단위의 진출전략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

○ 환경, 에너지, 관광 분야에서 성공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
– 환경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관리, 관광 편의성 확보를 위한 관련 인프라 등의 분야가 시장에서의 좋은 반응을 끌어낼 것

○ 환경 분야의 진출전략에서처럼 지자체에 대한 공략 필요

– 예산 확보가 쉽게 될 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와 더불어 EU 기금이 활용되는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동부 내륙 슬라보이나 지방)등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음

2-4. 의료(의료기기 및 의약품)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국립 병원 중심의 의료 시장에 따라 공공 입찰 준비가 필수
- 의료 관광과 연계한 의료 산업 발전 추진
- 뷰티 및 치과 관련 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크로아티아의 의료 산업 현대화 추진 정책, EU 기금의 투자 및 의료 관광 활성화는 의료기기 산업에 긍정적 요인

– 「National Healthcare 개발 전략 2012–2020」통해 기존 의료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 계획

– EU 기금을 통해 주요 국립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에 지속 투자

○ 노인 인구의 증가 및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지출

– 크로아티아의 인구 구조상 연금 혜택 대상인 노인 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료 시설에 대한 확충이 필수적이며 의약품 시장에도 영향

○ 의료 관광에 집중하고 다른 유럽 국가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크로아티아는 의료 산업의 발전과 관광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의료 관광에 집중

– 올해 4월 유럽 eHealth Network의 승인을 받아 다른 유럽 국가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환자수의 증가가 예상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공공 조달 시장에 초점을 둘 필요

– 크로아티아의 의료 시장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의존율이 90% 이상

– 의료기기 및 의약품의 구매는 공공 조달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며 입찰의 특성상 믿을만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입찰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은 현지 유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진출

– 크로아티아 내 상위 10대 의료 관련 유통사가 전 의료기기 및 의약품 품목의 80% 이상을 유통하고 있는바 현지 기업과의 제휴가 필수적

ㅇ 민간 분야의 경우 의료 관광 활성화에 따라 치과 및 피부과 분야가 유망

– 공공 의료 서비스외에 민간 의료 서비스에서 유망한 분야는 치과와 피부과로 드릴, 체어, 치과용 X-ray, 임플란트 구조물 등의 치과 장비 및 보톡스, 필러 등의 미용 제품에 대한 성공 가능성 높음

3 한-크로아티아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020년 진출전략

분야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자동차	전기차를 활용한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
국방	군 현대화 수요에 따른 방산산업 수출
농축어업	기술 전수를 통한 산업 협력
협력 전략	기간 산업 발전을 도우며 Win-Win 방향의 전개

3-1. 자동차 산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 크로아티아 정부는 전략적으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유럽 자동차 시장 상황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
- ○ 최근 국내 자동차 메이커가 크로아티아 전기차 기업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국가 간의 교류 협력 측면에서 한-크 간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모색해 볼 수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 크로아티아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지만,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인접하여 2차, 3차 벤더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을 보유
  - – 2018년 기준총 수출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의 점유율은 약 4.7%
- ○ 크로아티아는 낮은 제조업의 기반을 늘려가고자 자동차 관련 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유럽 자동차 메이커의 매출 부진으로 쉽지 않은 환경
- ○ 크로아티아는 슈퍼 전기차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리막(Rimac) 및 군용차 제조 기업인 도킹(Dok-Ing) 등이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자동차 관련 신기술 R&D 기지로의 역할을 기대
  - – 리막은 현대기아차를 포함하여, 포르쉐 등의 글로벌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관심도 높은 기업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올해 5월 크로아티아의 고성능 전기차 업체인 리막에 총 8,000만 유로(약 1천억 원) 투자
  - – 전기차 관련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 현대차 6,400만 유로, 기아차 1,600만 유로 규모로 투자
- ○ 자동차 산업은 연쇄 효과가 막대한 산업으로 현대기아자동차의 크로아티아 R&D 센터의 건립, 리막사에 대한 인수, 관련 법인 진출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이야기되고 있어 자동차 물류, 관련 부품 벤더들은 현대기아자동차의 크로아티아 투자 현황을 지속적으로 눈여겨 볼 필요 있음

3-2. 국방 산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군 현대화 수요 및 미국의 NATO 회원국 대상 GDP 대비 국방비 비율 2% 충족 요구에 및 경제 환경의 점진적 완화에 따라 단계적인 군 현대화가 지속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발칸 전쟁 이후 국제 정세의 안정으로 및 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군사 규모가 크지 않고 아직 현대화되지 못한 시스템이 남아 있으나 인접 국가와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어 방위 시스템 개선의 요구는 지속됨

○ 크로아티아 정부는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점차 증가시켜 2019년에도 계속해서 방위 예산을 늘려 갈 것으로 보이며 군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군 인력을 줄일 수 있는 국방 시스템 현대화에 더 많은 투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장기적으로는 모든 군사 부문에서 현대화가 필요하지만, 크로아티아가 직면한 안보 위협의 본질을 반영하여 육군 부문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군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통제 시스템 확충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 2018년 8월, 크로아티아 군대는 전술 통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하였고, 향후 10여 년 동안 6,000대의 핸드 통신장비 및 700대의 차량용 라디오를 조달할 예정

○ 첨단 소재를 활용한 군복 및 개인 보급을 위한 군수 물자 시장에 초점을 둘 필요

3-3. 농축어업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크로아티아의 농축어업은 좋은 자연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작거나 관련 기술 수준이 높지 못해 산업 비중이 적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국가 간 기술 교류와 투자 등을 통해 크로아티아의 농축어업 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의 기술 전파와 특성화 되어 있는 농축어업 제품에 대한 투자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크로아티아는 총 3,000만 헥타르 이상의 농경지, 목초지를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유형의 기후와 토양으로 광범위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점

– 농업의 경우 크로아티아 와인, 육가공의 경우 육포 형태의 쿨렌(Kullen) 및 프로슈토 등이 지역 특산물로 알려짐

○ 넓은 아드리아해와 국토 곳곳에 강이 흐르는 크로아티아는 어업과 관련하여 깊은 역사가 있으며, 어업은 주변 국가와의 교역에서도 흑자를 보이는 몇 안 되는 산업 중의 하나

– 크로아티아 정부는 양식 및 해양 양식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2018년에는 4천 5백만 유로 투자

– 장기 양식 계획에 제시된 목표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양어장 생산량을 늘려가는 계획

– 특히 아드리아해에서 어획되는 참다랑어는 일본, 중국 등 극동아시아까지 수출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 어종 중의 하나이며 달마시안 남부 지역에서는 굴 양식도 활성화

○ 등록된 농장의 63.1 %가 3 헥타르 미만의 소작농인 반면, 평균 상업 농장은 8.5 헥타르

– 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도시 지역 소비 수요의 증가로 소비재 식품에 대한 수입은 연간 20억 달러 이상

○ 어업의 경우 섬이 많은 특성 때문에 그물을 통한 어업 활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라 알려져 있으며, 크로아티아 정부는 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업 기술의 도입 및 양식량을 늘리려고 노력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크로아티아의 농축산어업 산업은 국가 차원에서의 교류를 통해 국내 기술의 이전 및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

– 국내의 고도화된 농업, 축산, 어업 기술 이전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해외 취업 포함)의 기회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품질 관리를 포함한 농축산물 통합 관리 시스템에 대한 IT적 접근도 기회 요소

– 부가가치가 높은 농축어업상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를 기대

* 중국의 경우 지난 5월 정부 관계자가 크로아티아에 방문하여 축산 가공 공장, 소금 생산지, 굴 농장 등을 방문하여 기술 및 투자에 대한 논의를 시작

4 진출 시 유의사항

소량 수시주문	프로젝트 파트너 역량 부족
■ **(현황) 소량 수시주문 경향 및 빠른 납품 선호** - 시장규모가 작은 현지 특성상, 우리기업의 MOQ 미충족 사례 빈번 - 소규모 수시주문, 짧은 납품기한 등으로 서유럽 제품 선호 ■ **(대응전략)** ☞ 물류창고 설치 혹은 동 역할을 해줄 협력사 발굴을 통해 수시주문 대응력 제고 필요 ☞ KOTRA 공동물류센터(슬로베니아 코퍼 항) 이용은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좋은 방책	■ **(현황) 현지기업 역량 부족으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애로** - 국내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실적을 가진 현지기업 부재 ■ **(대응전략)** ☞ 대부분의 현지 프로젝트는 EU 역외기업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나, 언어·접근성 등 여러 장벽으로 인해 단독 수주 사례는 매우 적음 ☞ 관련 분야 프로젝트 수주 실적이 있는 서유럽 등지의 EU 소재 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크로아티아 프로젝트 시장진출 필요

대금결제 관행	EU의 높은 안전 기준
■ **(현황) T/T 사후송금 방식 선호** - 30일, 60일 이내 사후 결제 방식이 널리 통용됨 ■ **(대응전략)** ☞ T/T 사후송금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지 관행을 이해하고 협상에 나설 필요 있음 ☞ 신용장 방식 고집보다는 T/T 사전·사후 혼합 송금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현황) 한국과 상이한 EU 안전 기준에 따른 수출 애로 발생** - 한국 식품제조기업 A 사는 한국보다 엄격한 EU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으로 인해 수출 애로 발생 ■ **(대응전략)** ☞ 우리나라보다 까다로운 현지 기준을 파악해 EU 기준에 맞는 시험성적서 사전 준비 필요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330499	수입관세율(%)	0%
화장품	수입액('18/US$백만)	95	대한수입액('18/US$백만)	1.4
	선정사유	- 최근 전체 시장규모가 1억 달러를 돌파하며 확대 - 서유럽에서의 성공을 힘입어 한국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시장동향	- 메이크업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저조함 - 통상 스킨케어 제품 수요가 메이크업 제품보다 높은 것을 고려 시, 스킨케어 제품 수요 증가 예상		
	경쟁동향	- 메이크업, 향수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의 유명브랜드가 시장 장악 - 스킨케어, 기능성 화장품 시장은 치열한 경쟁 예상		
	진출방안	- 유럽진출을 위해선 CPNP 등록은 필수 선결과제 - 병행수입, 온라인 마켓 소비자의 호평에도, 아직 직수입자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 - 시장규모를 감안할 시, 적절한 수입상을 선정하여 독점거래를 추천		
품목명 2	HS Code	871160	수입관세율(%)	0%
전기자전거	수입액('18/US$백만)	6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 정부는 레져 관광 육성 및 지역개발 전략으로 전기자전거 공급계획 수립 - 에너지 절감 및 CO2 저감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구축 노력으로 전기자전거 이용객 증가		
	시장동향	- 페달보조방식(PEC) 자전거가 주요 유통모델 - 주요관광지 중심 전기자전거 임대서비스 확대 - 수요 증가로 Greyp Bikes, Grunner 등 현지 전기 자전거 생산업체 수도 확대		
	경쟁동향	- 중국과 독일 제품이 시장 주도 - 2019년 1월 EU는 중국제품에 반덤핑 관세부과 확정(최대 79.3%)		
	진출방안	-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를 통해 적정 유통사 발굴 필요 -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등 인근 국가를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유통사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장확대에 유리		
품목명 3	HS Code	853950	수입관세율(%)	0%
LED 조명	수입액('18/US$백만)	10.5	대한수입액('18/US$백만)	0.000385
	선정사유	- EU는 2018년 9월부터 EU 내 할로겐 조명 생산을 전면 금지함 - 이에 따라 LED 시장 확대 예상		
	시장동향	- LED를 포함한 전체 조명기기 시장은 서유럽 제품이 강세 - 시장 수요가 높아 다양한 유통사들이 활동 중		
	경쟁동향	- 서유럽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했음 - Philips(네덜란드), Modular(벨기에), Massive(UK) 등이 인기 브랜드		
	진출방안	- 중국산 저가제품과 대기업 제품의 공세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시장 설정 필요 - 저가시장 혹은 스마트 조명 등과 같은 차세대 프리미엄 시장 공략		
품목명 4	HS Code	854370	수입관세율(%)	0%
전자담배	수입액('18/US$백만)	6.6	대한수입액('17/US$백만)	0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의 흡연율은 인근국 대비 높은 편이며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 증가로 인해 전자담배 이용자 비율 증가		

	시장동향	- 2012년 처음 시장에 선보인 이후, 연평균 36%의 고성장세 시현 - 일반담배, 전자담배 모두 시장규모는 확대 중
	경쟁동향	- 주요 유통경로는 온라인 쇼핑몰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 - 궐련형 제품은 아이코스가 시장선점
	진출방안	- 크로아티아 시장은 우리기업에게 미개척 시장으로 관심 필요,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크로아티아를 EU 시장의 테스트배드로 활용 가능

품목명 5	HS Code	902212	수입관세율(%)	0%
컴퓨터 단층촬영 기기	수입액('18/US$백만)	2.27	대한수입액('18/US$백만)	0.076
	선정사유	- 의료기기 수입은 매 3~6%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 EU 기금 공급에 따른 의료장비 현대화 가속		
	시장동향	-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센터 등 대형장비 수요는 포화상태 - 개인 정형외과의원을 중심으로 소형장비 수요 확대 중		
	경쟁동향	- Siemens(독일), GE(미국)이 시장을 주도 - 이 외 Philips(네덜란드), Toshiba, Shimatzu(일본) 제품이 공급되고 있음		
	진출방안	- EU내 데모교육센터를 통한 제품 홍보 필요 - 제품 홍보를 위한 단기 렌탈도 고려대상		

품목명 6	HS Code	901832	수입관세율(%)	0%
미용시술용 봉합실	수입액('18/US$백만)	3.35	대한수입액('18/US$백만)	0.067
	선정사유	- 비절개 미용시술에 대한 수요 증가 - 한국산 제품의 높은 품질에 대한 인식 확산		
	시장동향	- EU와 미국산 제품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시장변화가 빨라 신규제품 수요 상존 - 소수의 한국기업이 수출 중		
	경쟁동향	- Aesthetic Dermal RRS(스페인), Juvederm(미국) 등의 제품이 주요 공급 제품		
	진출방안	- 기존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 - 관세율은 0%이지만, 높은 부가세(24%) 고려 필요 - 사절단 및 세미나 참석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필요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스마트락 홈솔루션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 관광 산업 발전으로 관광객 급증 - airbnb 등 공유서비스의 발전으로 인해 하우스단기대여 공급 확대
	시장동향	- 대략적인 시장규모는 5백만 달러로 약 15만 가구가 하우스렌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경쟁동향	- 아직 신규시장으로 소수의 업체만 활동 중
	진출방안	- 신규시장으로 시장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소규모 에이전트 선정 필요
품목명 2		
의료영상전송 시스템	선정사유	- EU기금 활용 병원 현대화 및 정부의 의료관광육성으로 시장확대 예상
	시장동향	- 60여 개의 주요 병원 및 헬스센터들이 5-7년 내 모두 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
	경쟁동향	- 크로아티아 기업 VAMS TEC가 시장을 장악 - 이 외 IBM, Ericsson 등이 활동 중
	진출방안	-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큰 디지털 방사선기기 공급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주효
품목명 3		
관광서비스	선정사유	- 크로아티아 GDP의 약 20%가 관광 산업에서 비롯되는 관광국가 - 한국 관광객 급증으로 한국인 관광객 대상 서비스 수요 확대
	시장동향	- 크로타이아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관광객 수는 약 10%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항공이 정기직항편을 취항함에 따라 양국 인적교류 확대 전망
	경쟁동향	- 소수의 한국 로컬 여행사 활동 중
	진출방안	- 한국관광객 증가에 따라 높은 현지여행사의 협업수요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
품목명 4		
건설, 플랜트	선정사유	- EU기금 활용 각종 프로젝트 추진 중
	시장동향	- 크로아티아는 EU기금 활용 경험 부족으로 타 국가 대비 기금 활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정부 노력으로 최근 많은 프로젝트가 사업자 선정 및 공사 진행 중
	경쟁동향	- 건설, 플랜트 입찰 시장에는 독일, 스페인, 이태리 등 현지 실적을 다수 보유한 EPC 업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EU 내에서의 EU 기업 보호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어, 우리기업의 면밀한 사업분석이 필요한 상황
	진출방안	- 현지 로컬 EPC 기업의 경우, 기술 수준이 우수한 우리기업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치고 있어, 이들 기업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발주처 접촉을 통해 신뢰 구축을 사전에 이루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업명	시기/장소
1	무역사절단	2020 방산산업 수출사절단	5월/자그레브
4	무역사절단	2020 충북도-세종시 무역사절단	5월/자그레브
5	무역사절단	2020 경북 동유럽 무역사절단	9월/자그레브
3	포럼	2020 한-크 비즈니스 포럼	10월/자그레브
2	무역사절단	2020 부천시 무역사절단	11월/자그레브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크로아티아 대선	2020.1.20	
크로아티아 총선	2020.12.23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 수행	2020.1.1 ~ 6.30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법인세 12%(일반 법인세 18%) 적용 기업 범위 확대	2020.1.1	

유망 전시회 캘린더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조선	요트, 보트, 해양레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보트쇼 (Zagreb Boat Show)	2020.2.19 ~ 23 /자그레브
패션·뷰티	화장품, 네일, 헤어	크로아티아 미용박람회 (Beauty&Hair Expo Zagreb)	2020.3.6 ~ 8 /자그레브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부품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오토쇼 (Zagreb Auto Show)	2020.3.31 ~ 4.5 /자그레브
치의료	치과기자재	크로아티아 덴텍스-국제 치기공 박람회 (Dentex-International dental medicine fair)	2020.5.21 ~ 23 /자그레브

부록 對크로아티아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Ⅰ. 한-크로아티아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크로아티아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현황

크로아티아의 잠재력

○ **EU 최전방 국가로서 발칸 반도와의 높은 접근성 → EU 및 발칸 반도 진출 거점**

* EU 28번째 회원국, 세르비아, 보스니아 등 발칸 국가와의 지리·문화적 높은 인접성

○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활발**

* 2021~2027년 기간 동안 약 99억 유로의 기금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13번째로 높은 금액

○ **아드리아 해 연안 국가로 높은 해상물류 접근성**

* 범유럽 수송망 V, VI, VIII이 지나는 남동유럽 물류 요충지

주요국의 대(對)크로아티아 경제협력 현황

○ **크로아티아는 작은 시장규모로 인해 외부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으나, 2013년 EU 가입 이후 시장의 잠재성이 부각되어 일부 주요국이 크로아티아와의 협력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는 실정**

주요국의 대(對)크로아티아 협력 현황

주요국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중국	• 중국교통건설유한공사, **크로아티아 주도와 두브로브니크 네레트바 주를 잇는 펠레샤츠 해상다리(약 2.5km) 건설 프로젝트 사업 수주(2018)** • 펠레샤츠 다리를 기점으로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크로아티아 투자 논의 본격화 * 16+1(China+1) 정상회담을 크로아티아에서 개최(2019.4.10~12.)하며 양국은 경제·문화 교류를 위한 4개의 양해각서 체결 • 크로아티아 전기슈퍼카 업체 리막(Rimac Automobili) 중국 카멜(Camel Group)로부터 3,000만 유로를 투자받고 중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 크로아티아 스마트폰 제조서 항가 18(Hangar 18), 중국 Shenzhen Sumvier Technology와 제휴를 맺어 중국 내 스마트폰 생산 중
러시아	• EU 역외 국가 중 대(對)크로아티아 **FDI 1위 국가**(2018년 기준 총투자액은 4억 438만 유로) •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에너지·경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크로아티아 경제협력 강화 추진 • 크로아티아 최대기업 아그로코르(Agrokro)가 부도 이후, 러시아 은행 지분이 46.7%인 **포르테노바 그룹**으로 재출범(2019.4.1.)하면서 크로아티아 경제에 대한 러시아 영향력 확대 • 러시아 국영 천연가스 추출기업 **가즈프롬(Gazprom)**은 크로아티아 천연가스 기업 **PPD**와 매년 1bcm의 천연가스 크로아티아 공급 10년 계약 체결(2017.10.1.) • 크로아티아 크로덕스(Crodux)와 러시아 자루베즈네프트(Zarubezhneft)는 보스니아 정유공장(자루베즈네프트 소유)에 가스운반 계약 체결(2019.5.25.)
일본	• 일본은 크로아티아의 42번째 무역국가로 양국 간 경제협력은 저조 • **EU-일본 경제연대협정(EPA)**의 2019.2.1. 발효로 일본산 제품 99%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양국 무역 증대 기대 •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크로아티아 참치를 수입 중이며, 이는 크로아티아 일본수출의 약 70%를 차지(수산물 수출은 전체 94%)

EU 가입과 연계된 크로아티아 시장의 변화와 기회

◈ **EU 가입으로 크로아티아의 시장접근성 및 투자매력도가 증가하였으며,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개선 및 소비 확대가 기대**

	· EU 가입(2013.7.1.)으로 인구 5.1억의 EU 단일시장에 편입함 · 여전히 발칸 국가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EU 및 발칸시장 진출에의 교두보 역할 수행 가능 · 한-EU FTA가 크로아티아에 적용되는 한편, 이후 셍겐 조약, 유로존 가입이 추진될 경우 시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전망
	· EU 공동번영을 위해 회원국에 배정된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프로젝트 대거 추진 · EU 집행위는 106.7억(2014~2020년), 98.9억(2021~2027년)을 크로아티아에 배정하여 크로아티아 인프라 개선을 유도 · EU 환경 기준 등 EU 규범 충족을 위한 인프라·건설 시장 기회 확대
	· World Bank는 2019년에 크로아티아를 고소득 국가군으로 분류 · 관광 산업 성장, 정부구조 개혁 등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 가계구매력 증대 · 중산층 증가로 구매 성향은 가격에서 품질 위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이용비율도 현저히 증가 중

√ **소득 증가로 가계소비 확대**

· 소규모 가족 형태 증가하고 있으며, 뷰티제품·가전제품 등의 소비 증대

·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급성장**('18년 18억 쿠나에서 '23년 32억 쿠나 이상으로 연 평균 11.8% 성장, Euromonitor)

√ **대한(對韓) 우호적 분위기에 따른 협력수요 증대**

· **EU의 중국, 러시아 경계 기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과의 협력에 우호적**

· **최근 우리기업의 수출 폭발적 증대** : 2013년 EU 가입 이후, 우리기업의 크로아티아 수출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 시현

· **한국인 관광객 증가**, 문화 한류 확대에 따라 한국산 공산품, 화장품 등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산

· 대(對)EU 무역의존도 축소를 위한 아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에 긍정적

√ **대(對)크로아티아 투자 확대 예상**

· 거대 EU시장, 아드리아해 연안의 물류 이점 등으로 대(對)크로아티아 투자 확대 예상

· 체코, 헝가리 등 **인근 동유럽 국가 투자 포화**에 따른 **반대급부**로 제조업 투자 기대

· 유럽 인접국가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한편, **중국·러시아 등** EU 역외 국가의 **유럽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략적인 크로아티아 투자가 확대될 전망**

한-크로아티아 외교관계 대비 경제협력은 아직 미흡한 수준

○ 한국정부는 1992년 크로아티아 독립을 승인하며 외교관계를 수립

○ **1995년 양국은 무역협정을 맺고 경제관계 확대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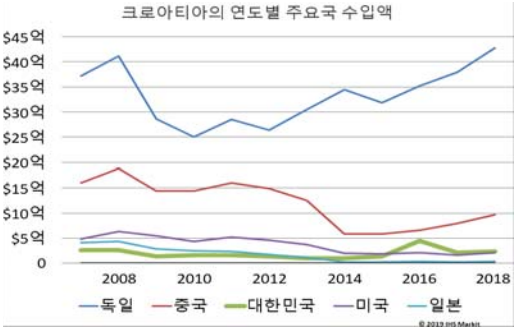
* 1998년 크로아티아 리예카 항 현대화 사업에 운반하역용 크레인 7기 구매, 설치 및 관련 토건공사에 3,454만 달러 유상원조

○ 크로아티아의 EU 가입 이후 양국 간 인적교류, 무역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투자규모는 미흡

* 크로아티아의 잠재력에도 불구, 각종 규제에 따른 투자매력도 하락에 기인

한국-크로아티아 및 주요국 교역/투자 동향

1. 크로아티아의 연도별 주요국 수입액



- '18년 크로아티아의 주요국 수입액은 독일로부터 약 42.8억 불, 중국 9.6억 불, 한국 2.4억 불, 미국 2.1억 불, 일본 0.4억 불 규모
- 크로아티아 EU가입('13년) 이후 CAGR 비교 시, 독일 약 7%, 중국 △5%, 미국 △10%, 일본 △18%, 한국 20%로 주요국 대비 높은 증가율 추세
  *** 그러나 '17~'18년도 증가율은 11%로 주요국 대비 최저 수준**

2. 대(對)크로아티아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의료용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기계 및 부품	자동차 및 부품	철강류
중국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광학기기	가구·조명기구	완구·운동용구
일본	기계 및 부품	철강류	유기화합물	자동차 및 부품	전기기기 및 부품

- (수출경합도) 대 크로아티아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1개 품목, 한국과 일본은 3개 품목이 겹침.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8.)

3. 대(對)크로아티아 투자진출 현황(2019년 1/4분기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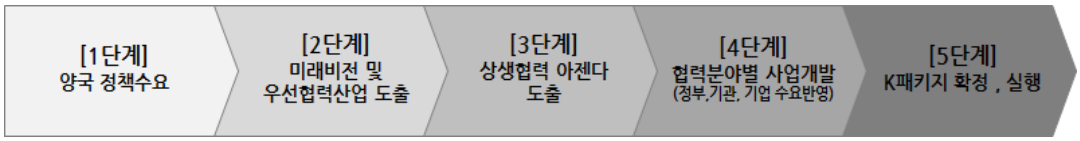
순위	국가	투자액(EUR)	비중(%)
1	오스트리아	4,414.2	14.15
2	네덜란드	4,011.5	12.86
3	이탈리아	3,416.3	10.95
4	독일	3,342.9	10.72
5	룩셈부르크	2,849.9	9.14
6	헝가리	2,755.3	8.83
7	슬로베니아	1,400.4	4.49
8	영국	1,070.9	3.43
9	프랑스	983.4	3.15
10	스위스	909.4	2.92
23	중국	125.7	0.40
30	일본	5.6	0.02
-	한국	0.0	0.00

자료 : HNB(크로아티아 중앙은행, 2019.8.)

- 대(對)크로아티아 투자의 대부분은 EU 역내 투자
- 한중일 3국의 투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에 따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 한국은 현대·기아차가 전기차업체 리막에 8천만 유로를 투자키로 결정('19.5.)해 투자진출에 대한 기대를 일으킴
- 전체 투자 비중은 금융업(23.0%)이 가장 높으며, 도매업(9.5%) 부동산(7.0%), 통신업(6.7%), 소매업(6.2%) 순

나. 한-크로아티아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보다 체계적이고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프로젝트 개발 필요



* 크로아티아의 니즈와(수요 측면) 한국의 강점을 연결하여 상호 비전달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크로아티아는 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

크로아티아의 투자유치 희망 산업[주]

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제약	ICT	◈ **교역대상 다변화** - EU 경제의존도↓ ◈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 신재생에너지, 교통 등 분야, PPP ◈ **4차 산업 분야 협력** - ICT, 스마트시티 등 ◈ **제조역량 공유 (투자유치-수출연계)**
섬유, 목재	식품가공	
금속	자동차	
전기	화학, 플라스틱, 고무	

주) Invest In Croatia(www.investincroatia.hr)에서 확인

우리나라도 미-중 무역전쟁 속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EU·발칸시장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크로아티아와 경협개발 노력

* 정부, 기관, 기업단계로 이어지는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G2G, B2G, B2B 협력전략 부재

(최근 양국G2G 레벨 회담에서의 주요 협력 논의 분야) 물류, 인프라, 에너지, 보건의료, 방산 등

크로아티아 수요 대비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 우선 산업		구체적인 역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식품 및 가공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경제발전 경험 및 공유, 전파 역량보유** - KSP, 한류 등 ◈ **해외 투자진출을 통한 글로벌화 전 세계 상위권** ◈ **전통적 ICT 강국**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 **높은 전문인력/기술 보유** - 대학 졸업자 비율 약 68%
콘텐츠와 소비재 유통	기계장비	
전자기기	보건의료	
ICT	에너지/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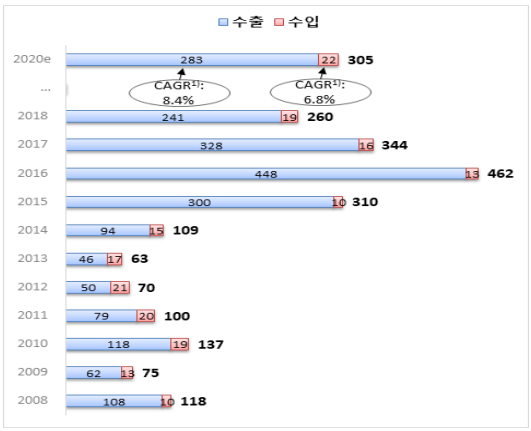
양국 경제협력을 통해 2020년 교역액 3억 달러 달성 목표설정

교역액 목표설정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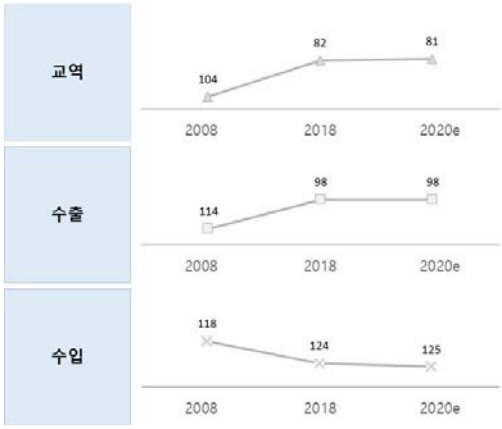
◈ **2020년 양국 교역 3억 달러 재입성 (세계 교역규모 81위)**

- 2018년 교역 2.6억 달러 대비 0.45억 달러, 17% 증가치 (세계 교역규모 82위)

〈대(對)크로아티아 교역 추이 및 목표〉



〈대(對)크로아티아 교역 순위 목표〉



주1) 10년 치 연평균 성장률(2008년-2018년), 단위: USD 백만
주2) 한국 100위권 교역 국가의 2008~2018년 연평균 성장률을 적용, 2020년 예상치 적용 후 순위 추정
자료 : 무역협회(2019.8.)

한-크로아티아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경제협력대상국 확대 및 투자유치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크로아티아와 G2 리스크 분산을 위해 경제협력국 다변화를 모색하는 한국 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으로 외교, 안보, 정치 및 문화 등 분야는 추가적으로 반영 필요

Ⅱ.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산업기반 조성 및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산업·사회 全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1 투자 규제 완화 및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 협력

- **(현지 수요) 크로아티아는 일자리 창출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절실**
- **(기업 수요) 폴란드·헝가리 등 인근 동유럽 투자 포화에 따른 인력수급 난항, 운영비용 증가 등으로 대체투자처 필요**
- **(협력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철폐, 정부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도시·인프라·환경 프로젝트 개발**
  - 자국민 의무채용, 관료주의 등 대표적으로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투자장벽 해소 유도
  - 스마트시티, 폐기물 재활용, 전자정부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모델을 바탕으로 공동 프로젝트 개발

2 인적·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협력

- **(현지 수요)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지방 차원의 인적·문화교류 필요**
  - 크로아티아는 자그레브·스플리트 등 대도시 위주로 인적·문화·산업 자원이 집중되어 있어 오시옉 등 저개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적·문화 교류 필요
- **(한국 수요) 쌍방향 문화외교를 통해 양국 간 무형의 신뢰자원 축적 및 국제무대 한국 영향력 확대**
  - 2013년 이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일방향(한→크) 인적교류를 문화한류로 확대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 강화
- **(협력 방안) 지방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한 문화교류, 공공기관·협회 차원의 MOU 체결을 통한 체육·예술·기술·인적 교류 기반 조성**
  - 문화·스포츠·학생·기술·학술회의·체육·관광·음식 등 다방면의 상호교류·협력 확대 도모
    * 양국 간 축구협회의 팀 운영 및 유소년 육성시스템 교류 업무협약(2019.1.)
    * 서울대–자그레브대 간의 식품영양학 분야 학술교류 업무협약(2018.12.)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1 제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 협력

- **(시장 수요)** 미래형 자동차(스마트카, 전기차)는 양국 기업의 주요 협력 유망분야

– 크로아티아는 유럽 내 몇 되지 않는 완성차 공장이 없는 국가로, 일자리 창출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고려

* 플렌코비치(Plenkovic) 국무총리는 크로아티아 전기차 업체 리막(Rimac)을 방문(2019.6.), 미래형 자동차 분야의 크로아티아 경쟁력 강화 및 크로아티아E-mobility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

○ **(현지 역량) 뛰어난 성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은 크로아티아 하이퍼전기차 업체 리막에 완성차 업계의 협력 러브콜 쇄도**

– 리막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를 만드는 하이퍼 전기차 업체로 드라이브 트레인·베터리 분야에 독자적인 기술 보유

– 현대·기아차, 포르쉐 등이 투자를 통해 전기차 개발 협력중

* 현·기차 정의선 부회장은 직접 리막 본사를 방문('19.5.) 총 8,000만 유로의 투자계약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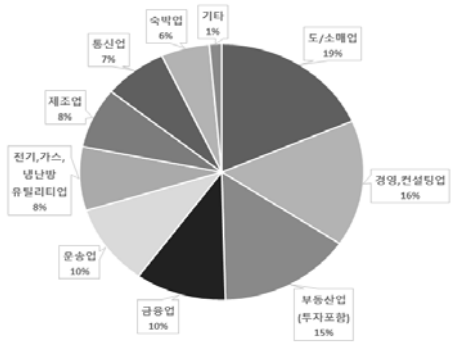
– 한국의 대(對)크로아티아 투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나, 현대·기아차의 투자결정에 따라 연관 산업 투자 확대 기대

– 크로아티아는 글로벌기업이 활용 가능한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강점

* 크로아티아의 2017년 교육지수(UNDP)는 46위이며, 99%의 학생이 교과과정을 통해 영어를 습득(Eurostat)하고 있음

2018년 FDI 부문별 비중

(총액 : 10억 유로)



자료 : HNB(크로아티아 중앙은행, 2019.8.)

2018년 FDI 국가별 비중

(단위 %)

순위	국가	비중
1	오스트리아	31.2
2	독일	18.4
3	체코	12.2
4	스웨덴	11.5
5	룩셈부르크	8.5
6	스위스	8.3
7	헝가리	7.3
8	중국	5.6
9	보스니아	3.5
10	몰타	3.5
-	한국	0.0

자료 : HNB(크로아티아 중앙은행, 2019.8.)

크로아티아 자동차 산업 현황 및 전망

◆ 유명 완성차 공장은 없으나 **자국 브랜드 3개사 차량 생산 중**

- 전기차 업체인 리막과 도킹(DOK-ING), 버스 제조사인 크로버스(Crobus)가 소량이나마 자동차를 생산 중
- 도킹은 소형 전기차 생산 및 특장차 생산업체로 전기차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중

◆ 자동차 부품 생산설비도 확대도 점진적으로 진행 중

- 유럽 완성차 업체에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크로아티아 기업 에이디 플라스틱(AD Plastik)은 2018년 7월 헝가리 기업 Tisza Automotive를 인수
- 이외, 슬로베니아 자동차 부품기업 Cimos는 2020년까지 2천만 유로를 투자해 크로아티아 공장 설비를 확충하기로 결정
- 비교적 낮은 인건비, 연안 국가로서의 물류 이점, EU 시장 접근성으로 인해 크로아티아 자동자 부품업체 투자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협력 체계) 투자진출 기반 양국 주력 기업 중심 협업 기반 조성**

단계별 방안	자동차 분야
협력 프레임	현대·기아차-리막 협력을 기반으로 E-mobility 분야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중소업체 진출 확대
1단계	(G2G) 제조공장 신설, 생산 확대 등에 관한 규제완화 등 합의
2단계	(B2B) 현대·기아차-리막 협력 확대를 통한 전기차 개발
3단계	배터리, 전장부품, 주행보조시스템 등 관련업체 진출
추가 방안	양국 전기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도시간 협력 프로세스 구축

2 소비재·콘텐츠 유통

○ **(시장 수요)** 크로아티아 뷰티*·전자기기** 등 소비재 유통시장 지속 성장

– 크로아티아는 유행에 매우 민감하고 변화에 빨리 적응

– 크로아티아는 인구 410만의 작은 시장이나,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로 소비재 시장규모는 이보다 더 큼

* 2016년: 4.88억$, 2017년: 5.02억$, 2018년 5.05억$

** 2016년: 12.61억$, 2017년: 13.7억$, 2018년e 14.63억$

○ **(한국 역량)** 크로아티아 內 문화한류 바람으로 음악·영화·음식·화장품 등 콘텐츠 및 한국 소비재의 시장경쟁력 지속 제고

* 청소년·청년층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 나가는 문화한류가 K뷰티, 영화·드라마 등으로 점점 그 수요층이 확대되는 추세

○ **(협력 전략)** 유망 소비재·콘텐츠 분야에서 현지 맞춤형 상품 개발 노력

– (K-뷰티) BIPA·DM 등 현지 유망 유통채널과 한국 뷰티 강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크로아티아 K-뷰티 붐 조성

* 크로아티아의 뷰티 수요 파악을 통한 맞춤형 제품 생산(PB 제품)

**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 K-뷰티 트렌드 확대 재생산

– (콘텐츠) 국내 우수 방송콘텐츠를 크로아티아 현지 규격에 맞게 재제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수출 촉진

3 보건의료 협력

○ **(현지 수요)** 크로아티아는 전통적으로 공공의료가 강한 국가로 국가 규모대비 의약품·의료기기의 높은 수요

– 크로아티아는 의무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비용 전액·부분 환급

–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규모에 비해 높은 의약품, 의료기기 수요

* 크로아티아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는 2023년까지 각각 7.1%, 7.4%의 고성장을 할 것으로 관측(Fitch Solutions)

– ITC(International Trace Centre)에 따르면 의약품은 크로아티아 수출 잠재력과 수출성과가 가장 높은 품목

자료 : Exportpotential.intracen.org(2019.9.)

○ **(성장가능성)** EU 기금을 활용한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인프라 확대로 의약품·의료기기 수요 확대 전망

– 크로아티아는 2차 EU 기금(2014~2020년) 기간에 보건의료분야에 배정된 약 3.8억 유로를 전액 소진하는 등 프로젝트 추진이 순항 중

– 정부는 3차 EU 기금(2021년~2027년) 기간에 더 많은 기금을 의료분야 배정할 계획이며, 4개의 대학병원을 신설할 계획임

○ **(한국 역량)** 제약·의료기기 모두 높은 경쟁력 보유

– (제약산업)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는 한편 글로벌 신약 개발 등 연구성과 가시화로 해외진출 활발

– (의료기기) 범용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성형용 필러 등의 수출 증가

○ **(협력 방안)** 공공조달 공동참여, 현지 수요뿐만 아니라 재가공을 통한 수출 등 다방면 협력 도모

– 크로아티아 보건의료 지출의 약 80%가 공공부문 지출로 의약품 구매비용 환급, 의료기기 공공조달 등이 주 지출처

- 크로아티아 정부는 공공지출 감축을 위해 복제약과 오리지널약의 환급비율 차등을 통해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
- 또한, 최근 크로아티아 제약산업이 빠르게 수출산업으로 변하고 있어, 원료의약품 수출을 통한 글로벌 밸류 체인 형성 가능
- 의료기기의 경우 국공립 병원이 공공조달을 통해 제품을 공동구매하고 있어, 현지기업과 협력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공략이 필요
- 크로아티아 정부는 병원 현대화를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바, 스마트 의료기기, 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고도화 협력 가능

양국 보건부 보건의료협력 MOU 체결(2017년 11월 21일)

- 정부차원 협력을 통해 e-헬스케어, 병원 현대화 프로젝트가 우리기업이 기술력을 가진 분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의료부분 기업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 IT 기업이 현지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협력사례) 한국 스마트폰 혈당측정기 제조사 필로시스, 크로아티아 유통사 디메디쿠스와 구매계약 및 MOU 체결(2017년 3월)

4 한-크로아티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 **(현지 수요)** 전통적인 산업기반이 취약한 크로아티아는 ICT 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4차산업 시대 먹거리 확보에 사활

-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럽 투자기금(EIF)과 협력해 크로아티아 벤처 캐피탈 이니셔티브(CVCi)를 설립(2018년 6월)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
- 이외에도 EU 차원에서 유럽을 테크스타트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프로그램(인력, 자금)을 운영

○ **(상호 역량)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게임, IT, 보안, 핀테크** 등 기술력 보유 스타트업 다수, 크로아티아는 IT 분야 테크 스타트업 다수

크로아티아 주요 테크 스타트업

- (인포빕) 2006년에 설립한 메시지 플랫폼 제공회사로 이메일, SMS, 챗봇, 휴대전화 결제 등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 우버, 왓츠앱, 오라클 등 유명회사들이 인포빕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인포빕은 2018년에 약 47억 명의 사람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한 것으로 자체추정
- (벨라비트) 2013년에 설립한 IT 웨어러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아이와 여성을 주 타깃으로 한 스마트 주얼리 IT 기기가 주 제품. 주력제품인 Leaf는 약 3백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유럽 최고의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자리매김
- (탈렌트리프트) 2016년에 설립한 인재채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기업이 채용절차를 개선해 적합한 인재를 찾을 수 있는 플랫폼 지원
- (탑디지털에이전시) 디지털 에이전시를 디지털 프로젝트와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로 현재 112개국의 4,686개 디지털 에이전시가 등록되어 있으며, 2019년 2월 스타트업 그린드(Startup Grind)로부터 세계 스타트업 톱 50에 선정

○ **(협력방안) G2G 레벨 생태계 기반 조성** → B2G, B2B에서 협력 실현

주 : 부트캠프(boot camp), 피치데이(pitch day), 해커톤(hackathon), 테크이벤트(tech event) 등 개최

- 민·관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인적·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장 마련
- 양국 스타트업 발굴 및 교류, 현지 보육 지원을 위해 양국 정부주체 간 MOU 체결 필요
- 정부 차원의 쌍방향 스타트업 공동 지원 펀드를 조성해 스타트업·VC·엑셀레이터 지원 확대
- 양국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현지진출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 스타트업의 한국진출도 활성화해, 국가 간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 인재의 크로아티아 창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

  * 크로아티아는 EU 국가 중 두 번째로 사무실 임차료가 낮으며, 운영비용이 저렴해 EU 진출 테스트배드로 기능 가능(atomico, The State of European Tech 2018)

다. [B2G] 에너지·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

1 협력 수요

○ **(정책 수요) EU 공동목표 충족을 위한 환경·인프라 투자 수요**

- 크로아티아는 EU 환경기준 미달로 인해 환경 분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
- 단기적으로는 2022년 폐기물관리 기준 충족을 위해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 인프라 구축 수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030년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높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수요
- EU는 국가 간 결속 강화를 위해 교통·물류 인프라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크로아티아 역시 EU 내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극적인 항만·철도 투자 진행

○ **(SDG 관점) 인프라와 산업화 부분(SDG#9)에서 양국 간 가장 큰 갭***을 보여줌

* 35.1의 차이로 한국 우위

○ **(시장 현황)** 2018년 크로아티아 인프라 시장규모는 125억 쿠나로 4.5%대의 견조한 성장 기대 (Fitch Solutions)

- 크로아티아는 제3차 EU 기금(2021~2027년)기간에도 약 99억 유로의 기금을 배정받아 EU 기금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기회가 상존
- 도로, 다리, 철도, 발전소 분야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

– 아시아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사례는 극히 드무나, 최근 중국이 전략적으로 크로아티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국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사례가 발생

주요 진행 중인 분야별 프로젝트

분야	내 용
에너지	Kosinj/Senj 수력 발전소, Zlobin-Slobodnica 가스관 건설, 아드리아-이오니안 파이프라인, EL-TO 자그레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사회인프라	Pasman Rivijera 관광개발, 골프장 건설, 의료관광 육성
'도로/철도/항만	두브로브니크 크루즈선 터미널, 두브로브니크 공항 개보수, 헝가리 국경 철도 개보수, 리예카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자료 : Fitch Solutions(2019년 9월)

2 협력 방안

○ 우리나라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펀드 조성 및 활용**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시장에서 프로젝트 수주성과 확산 위한 정책 내용(2018년 11월)

○ 정부 차원의 **대중소 동반진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 인력·금융·정보제공 등 역량을 강화**

* 우리기업의 크로아티아 프로젝트 수주사례는 전무,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인 접근으로 펠예사치 다리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중국 사례 벤치마킹 필요

○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기획단계부터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토양마련 필요

– 크로아티아 에너지·인프라 개발시장의 주 추진동력은 EU 기금이나, 기획력 부재와 낮은 외부자금 조달능력으로 인해 크로아티아의 EU기금 활용률은 현저히 낮아 외부의 도움이 필요

* 2019년 10월 24일 현재 크로아티아의 EU 기금 활용률은 25%에 불과하며 이는 EU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EU 집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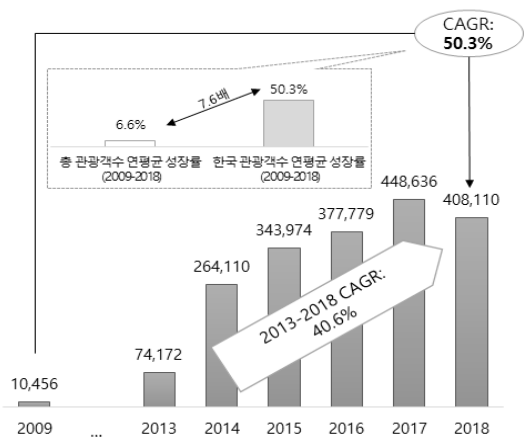
○ 에너지 부문의 경우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과 기업 간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이 주효할 것으로 예상(B2G)

라. [국민] 동반자 관계 형성과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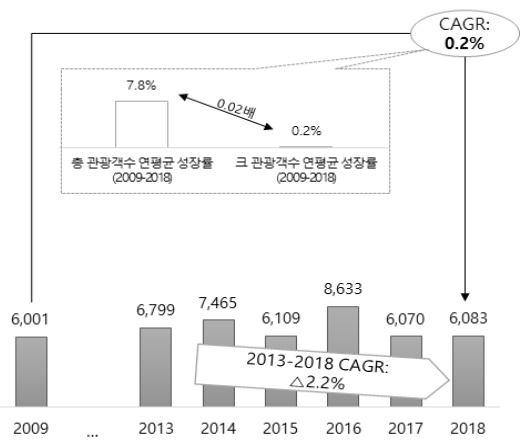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양국 간 관광객 교류는 각국을 방문하는 전체 관광객 수 평균보다 배로 높으며 최근 3년간의 성장률은 더욱 높아 **향후 인적교류가 지속 확대 전망 → 단순 인력교류를 넘어 경제협력* 더 나아가 상호문화발전 및 SDG 구현에 활용 * 교육(컨텐츠), CSR과 연계**

지난 10여 년간 양국 인력 교류 현황

크로아티아 방문 한국 관광객 수[1] (단위: 명)



한국 방문 크로아티아 관광객 수 (단위: 명)



1) 크로아티아는 각 숙박업소 체류객 수를 기준으로 관광객을 집계해 통계치가 실 관광객 수보다 과대집계되었음.

자료 : 크로아티아 통계청(2019년 8월), 한국관광공사(2019년 8월)

〈양국 SDG 분석 결과〉

SDG 점수 차이 ■ >31.7 ■ 21.4~31.7 ■ 11.2~21.4 □ <11.2

NO.	내용	크로아티아	한국	한-크 차이	절대값
SDG1	빈곤퇴치	98.4	99.0	0.6	0.6
SDG2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64.6	77.9	13.2	13.2
SDG3	보건증진	87.1	92.4	5.3	5.3
SDG4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87.4	95.8	8.5	8.5
SDG5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63.7	63.9	0.2	0.2
SDG6	물과 위생	82.5	81.5	-1.0	1.0
SDG7	에너지	89.5	92.5	3.0	3.0
SDG8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78.1	86.2	8.1	8.1
SDG9	인프라와 산업화	48.6	83.7	35.1	35.1
SDG10	불평등 해소	69.8	86.5	16.6	16.6
SDG11	지속가능한 도시	76.2	80.3	4.1	4.1
SDG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73.5	63.5	-10.0	10.0
SDG13	기후변화대응	93.6	87.7	-5.9	5.9
SDG14	해양자원 및 생태계	74.8	54.8	-20.1	20.1
SDG15	육상생태계	79.2	57.2	-22.0	22.0
SDG16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70.6	75.4	4.8	4.8
SDG17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84.7	53.4	-31.4	31.4
평균		77.8	78.3	0.5	11.2
절대값의 평균, 표준편차		평균: 11.2, 표준편차: 10.24			

평균 이상의 점수 차이를 가진 SDG

SDG	우위국가
기아해소와 식량안보 (SDG 2)	한국
인프라와 산업화 (SDG 9)	
불평등 해소 (SDG 10)	
해양자원 및 생태계 (SDG 14)	크로아티아
육상생태계 (SDG 15)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SDG 17)	

자료 : UN(2019년 8월)

1 상생을 위한 인력 교류 확대방안

① 정부, 기업, 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한국문화원 및 K-Beauty, K-Pop 등 한류 콘텐츠(춤, 노래, 화장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② 한국문화원 개소를 통해 K-콘텐츠 강좌 현지 소개

③ 양국 교육기관(대학교, 사설기관) 및 지자체 간 MOU를 통한 학생 교류 및 한국어 강좌 확대 (온라인, 오프라인)

인력 교류 사례와 SDG 관점의 의의

◈ **[사례1]**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자그레브대 식품생명공학과 학술교류 MOU
※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SDG4) : 한국 우위

◈ **[사례2]** 한국 대사관의 지원으로 K-pop 노래 및 댄스 경연대회 연례개최
※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SDG16) : 한국 우위

◈ **[사례3]** 프로축구팀, 축구협회 간 국제교류 MOU
* FC안양-NK 루츠코 자그레브, 대한-크로아티아 축구협회 국제교류 MOU
→ 크로아티아의 스포츠 저변 및 육성시스템의 한국 전파
※ 성평등과 여성역량 강화 (SDG5) : 한국 근소 우위

◈ **[사례4]** 양국 경찰청, 크로아티아 관광시즌 치안협력 MOU
* 여름 관광 피크시즌에 한국경찰관 6명 크로아티아 파견
→ 관광시즌 크로아티아 치안환경 개선 협력
※ 지속가능한 도시 (SDG11) : 한국 우위

2 CSR 활동을 통한 현지진출

○ 인적교류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아직 우리 기업의 진출은 미미
- 삼성전자, 대한항공을 제외하면 우리기업의 진출은 전무 하며,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소규모 여행사, 한식당, 숙박업소가 진출

○ 현지진출기업의 부재로 현지 상주 우리기업의 CSR 활동은 없었으며, 대신 현지진출을 노리는 우리기업들이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서 CSR 활동을 해 왔음

○ CSR 활동은 매우 효과적인 현지진출 방법으로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
- CSR 활동은 한국관광객 증가, 문화 한류, 가전제품, 자동차 등으로 형성된 높은 한국 국가 브랜드를 우리기업 및 제품에 투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과 동시에 한국 국가 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활동

우리기업의 크로아티아 CSR 활동 현황

기업명	CSR 활동
셀트리온 헬스케어	- 핵심 병원 전문의 초청 '치료제 기부 및 의료기술 세미나' 개최(2014년) - CHC Zagreb, CHC Rijeka, CHC Dubrava, CHC Seste milosrdnice, CHC Osijek 등 5개 병원 총 15 환자 대상 자가면역치료제 지원 - 총 기부액은 2,000만 원이며, 현지 협력사인 Oktal Pharma는 치료 효과에 따른 사회적 기여액은 1억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비엘테크	- 비엘테크 깁스 용품 기부 및 서비스 체험 설명회 개최(2017년) - 현지 주요 병원 구매담당자, 의사 및 간호사 40명을 초청해 서비스 체험 설명회 개최 - 자그레브 정형외과 특수 간호학교에 깁스 용품 6,000개 기증 - 총 기부액은 약 500만 원
낫소	- 현지 올림픽위원회를 통해 현지 체육용품 기증사업 개최 - 경제적 후원이 필요한 현지 여자축구, 여자농구팀 및 소규모 클럽에 낫소 공 500개 전달 - 총 기부액은 약 250만 원

○ 정부 차원에서 현지 CSR 수요를 파악해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 연계 필요

G2G/B2G 레벨에서 CSR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크로아티아 청년 대상 한국 연수 프로그램 도입**
  * 문화 한류에 따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 한국 연수에 대한 관심 고조

► **주크로아티아 대사관, 현지진출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문화 페스티벌 개최**
  * 이 밖에도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행사에 우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크로아티아 진출 대기업 CSR에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대기업의 경우 활동 수행여부가 크게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의 활동은 미비

► **단순 나눔의 CSR에서 경쟁업체와의 차별화된 마케팅 수단, 전략적 경영활동으로 진화(예 : CSV) 될 수 있는 프로세스 지원**

Ⅲ. 향후 對크로아티아 K패키지 실행체계(안)

한-크 경제공동위원회 구성

○ 한-크로아티아 경협위 구성 및 정례화를 통해 향후 지속적인 이행점검체계 구축

– 주요 산업별 담당부처를 구성하고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을 제고

○ Su 분과도 만들어, 분야별 트러블 슈팅, 신규과제 발굴, 실행력 제고

* 양국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두가 되는 거버넌스 스킴

KOTRA를 통해 경제·무역 분야 상시 협업

○ 양국 간 B2B 채널로서 KOTRA의 역할 강화

– 시장정보, 해외 마케팅, 투자유치 등 양국 간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한 전천후 지원 활동 전개

(Example)

KOREA	CROATIA
aT: Korea Agro-Fisheries&Food Trade Corporation CAK: Construction Association of Korea EX: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KAMA: Korea Automobile Manufacturers Association K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EPCO: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IDP: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KISED: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KNREA: Korea Renewable Energy Association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CEMA: Korea Construction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 KPHA: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KSIA: 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CS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MOHW: Ministry of Health&Welfare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Energy MSIT: Ministry of Science, Information&Technology NIRS: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Service SBA: Seoul Business Agency SBC: Small and Medium Bsuiness Corporation	ADKLASTER: Cluster of automotive parts manufacturers HAC: Croatian Motorways HAKOM: Croatian Regulatory Authority for Network Industries HAMAG BICRO: Croatian Agency for SMEs, Innovations and Investments HAPIH: Croatian Agency for Agriculture and Food HATZ: Croatian Academy of Engineering HAVC: Croatian Audiovisual Centre HDD: Croatian Design Society HEP: Croatian Electricity Company HGK: Croatian Chamber of Commerce HKA: Croatian Chamber of Architects HKKKI: Croatian Cluster of Competitiveness of Creative and Cultural Industries HZJZ: Croat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 HZZO: Croatian Institute for Health Insurance MFIN: Ministry of Finance MINGO: Ministry of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Crafts MINKUL: Ministry of Culture MINPOLJ: Ministry of Agriculture MINREG: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and European Union Funds MMPI: Ministry of the Sea, Transport and Infrastructure MZ: Ministry of Healthcare MZO: Ministy of Science and Education

MZO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Energy
OIE: Association of Producers of Renewable Energy of Croatia

Governance model

Enablers	
KOREA	CROATIA
MOEF	MFIN
KOTRA	HGK

ICT	
KOREA	CROATIA
MSIT	MZO
KISED	HAMAG BICRO
KDI	MINREG

Automobile	
KOREA	CROATIA
MOTIE	MINGO
MOLIT	MMPI
KAMA	ADKLASTER

Electronic Systems	
KOREA	CROATIA
MSIT	MZO
NIRS	HAKOM
KSIA	HEP

Machinery	
KOREA	CROATIA
MOTIE	MINGO
KCEMA	HATZ
KCEA	HGK

Roads & Highways	
KOREA	CROATIA
MOLIT	MMPI
EX	HAC
CAK	HKA

(Renewable) Energy	
KOREA	CROATIA
MOLIT	MZOE
KEPCO	HEP
KNREA	OIE

Consumer goods	
KOREA	CROATIA
MOTIE	MINGO
SBC	HUP
KIDP	HDD

(Media) Contents	
KOREA	CROATIA
MCST	MINKUL
KOCCA	HKKKI
SBA	HAVC

Healthcare	
KOREA	CROATIA
MOHW	MZ
NHIS	HZZO
KPHA	HZJZ

Food	
KOREA	CROATIA
MAFRA	MINPOLJ
aT	HAPIH
KCCI	HGK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이지택**	과장	자그레브무역관	+385-1-4815-102	jitaek.yi@kotra.or.kr

KOTRA자료 20-051

2020 국별 진출전략 크로아티아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97-5(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